

동남아 사로잡은 한국의 술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제3317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8일>

코스피	2019.53	(+13.69)
코스닥	674.97	(−4.86)
금리(국고채 3년)	1.62	(+0.01)
환율(원·달러)	1161.50	(+4.50)



롯데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호텔롯데 전경. /연합뉴스

신동주-신동빈 분쟁 2라운드 최대 피해자는 '롯데'

롯데의 눈물…

1 호텔롯데 상장 연기?
2 면세점 승인 위기?
3 투자·고용창출 무산?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2)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며 안정을 찾아가던 재계 5위 롯데그룹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호텔롯데 상장, 면세점 인허가 등 난제가 쌓여있는 가운데 다시 터진 제2롯데 사태가 한국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롯데는 올해 12월까지 순환출자 해소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며 내년 초까지는 호텔롯데를 상장할 계획이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80% 해소하는 데에만 7조원의 비용이 든다. 이는 한국 롯데계열사 중 최대 규모인 롯데쇼핑의 지난해 영업이익 6배에 달하는 액수다.

하지만 이번 소송전으로 호텔롯데 상장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향후 경영권 변동으로 실질적 지배주주가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이 노출된데다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상장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롯데그룹 측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의한 일정 차질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신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약속한 고용창출, 사회공헌 등도 발목이 잡혔다.

롯데그룹은 2018년까지 신규 채용으로만 2만4000명 규모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롯데가 올해만 신규로 채용한 인원은 1만5800명이다.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달 24일 신 회장이 사재 100억원을 출연한 롯데문화재단이 출범했으며 문화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었다.

11일 전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큰 투자를 결정하는 주체는 대기업들인데 경영권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며 "조속히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롯데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다시 들끓고 있다. 신 회장이 직접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두 번 다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한 달도 못 돼 경영권 분쟁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롯데의 기업국적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12월 운영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과 잠실 월드타워점의 재입찰을 앞둔 상황이라 악화된 여론은 더욱 부담스럽기만 하다.

롯데면세점 2곳의 연 매출은 2조6000억원으로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매출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회사가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한데 (이번사태로 인해) 기업가치는 떨어지고 임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같이 죽자는 게 그쪽(신동주 측)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신 대표가 호텔롯데의 상장을 막기 위해 경영권 분쟁을 재점화 시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대표는) 가장 주인행세하기 좋은 호텔롯데의 지분이 희석되기를 전혀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면세점 재입찰은 곧 호텔롯데의 상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송전은) 본인의 지분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행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의 호텔롯데 지분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36.6%다. 이는 신 대표 측의 주장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사태의 장기화로 남는 것은 실추된 이미지와 막대한 손해뿐이며 국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이라며 "롯데 오너일가가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3050세대 예상 은퇴시기는?

"62~65세 은퇴"

우리나라 30~50대 은퇴준비자들은 자신이 62~65세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 후 소득은 은퇴 전의 50~79%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이은 30~50대 은퇴준비가구주 1276명의 은퇴, 노후 삶에 대한 예상, 은퇴준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은퇴준비자들이 생각하는 예상 은퇴나이는 30대 62.0세, 40대 63.4세, 50대 65.4세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은퇴예상 나이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불충분 등의 이유로 더 오래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 연령층에서 노후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득 보다는 건강문제라고 밝혔다. 노후질병 중에는 암에 대해 우려가 가장 높았다. 암 발생 시 치료비가 높아 노후생활의 가장 큰 건강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개발원 은퇴준비현황 조사
연령 증가할수록 은퇴나이 높아
희망소득, 은퇴 전 50~70% 수준

아울러 은퇴준비자들은 은퇴 후 소득(연금 등)은 은퇴 전의 50~79% 수준이 되길 희망했다. 은퇴 후 예상하는 월 생활비(부부기준)는 최소 196만원, 적정 269만원으로 응답했다.

은퇴준비자들은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매우 높으나 자신의 노후준비 정도는 매우 낮게 평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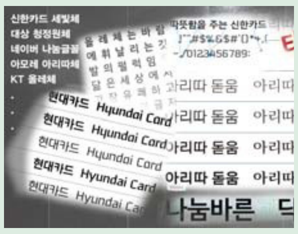
노후대비 필요성 응답비중이 모든 연령에서 90%를 웃돌았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40대의 준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시작연령은 50대는 40.7세, 40대는 34.9세, 30대는 30.1세 등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다. 노후대비 연간 저축액은 30대는 연간 354만원, 40대 369만원, 50대 404만원 수준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늘어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노후 보험상품의 관심정도와 구매의사는 전반적으로 낮다"며 "은퇴를 대비한 노후설계 서비스 이용경험은 낮으나 체계적인 노후설계 필요성에 대해선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Free distribution of Hangeul fon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Hangeul culture

무료 보급, 나눔가치 공유… 한글문화 발전 기여



Having Hangeul day ahead, Hangeul fonts that are created by organizations are receiving much attention.

The fonts with fascinating design and practicality are being distributed to general public for free and the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angeul culture by exchanging the value of sharing.

Besides, the fonts are being used as a marketing tool since they show the corporate image and identity of companies.

Hyundai card (representative Jung-Daeyoung) is the first organization that created its own company font.

The company created its own font 'You and I' in 2004 and it has been used in all the official documents as well as Hyundai card.

You and I mean that it is a communication tool that connects consumers (YOU) and Hyundai card (I).

In the font, physical form, angle and ratio (1.6:1) of Hyundai card are included. For the first 8 years, the font has undergone modification. It was amended so that it could also be used in the body of document as well as the heading.

'한글날'을 앞두고 각 기업들이 독자 개발한 한글 서체(書體)가 관심을 받고 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담은 각 기업들의 한글 서체는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보급, 나눔의 가치도 공유하며 건강한 한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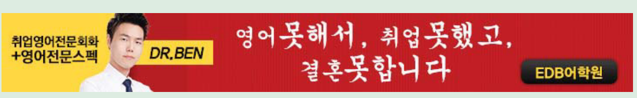
또 글자만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드러나며 한글 지키기 노력에 더해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대카드(대표 정대영)는 국내 최초로 기업 서체를 개발한 기업이다.

2004년 기업 전용 서체 '유앤아이'를 개발했으며 현재까지 현대카드 등 상품에는 물론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

유앤아이는 고객(YOU)과 현대카드(I)를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서체 모든 글자에 현대카드의 물리적인 형태와 각도, 비율(1.6:1)을 포함시켰다. 최초 개발 후 8년 간의 보완 작업을 거쳤으면 2012년 제목뿐만 아니라 일반 본문에서도 편하게 쓰고 읽을 수 있도록 완성됐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터키 수도 앙카라 중심지에서 발생한 2건의 **자살폭탄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95명(정부 집계, 의사협회는 97명으로 집계)으로 늘었다. 터키는 사흘 동안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 미국 하원 벵가지(리비아 미 영사관 피습사건) 특별위원회의 전직 조사관이 **특위**가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후보 선임이 좌절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조사를 몰아갔다고 폭로했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북한**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밝혔다.

▲ **일본 정부**는 난징 대학살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극도로 유감"이라며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

정치·사회

▲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관계 복원의 신호탄이 올랐다. 조만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개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3~16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1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 새누리당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검인정 역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자며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우리 당은 배타적이고 패권적 문화가 가득차 있으며 운동권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극복 등을 주장했다.

▲ **법원**이 상급자와 함께 2차 술자리를 한 군인에게 '2차 금지' 지시 위반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포스코 협력업체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서울에서 구리, 남양주를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 추진 10년만에 첫 삽을 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7일 구리시 수택동에서 별내선 착공식을 열 계획이다.

▲ 급식 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충암중·고** 학부모들이 급식실 신축을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교육청은 충암중·고가 급식 비리로 이미 한 차례 교부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어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해는 자살이 아닌 우발적 사고를 뜻하는 만큼 해당 약관은 주계약의 약관을 그대로 붙인 오기(誤記)라는 취지다.



겨울로 접어든 설악산 11일 오전 국립공원 설악산 귀떼기청(해발 1578m) 부근에 단풍과 함께 상고대가 활짝 펴 한겨울을 방불케 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7~10시께 귀떼기청 부근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볼보자동차코리아가 고객의 취향에 한발짝 다가가는 다양한 모델과 확장된 보증기간을 앞세워 국내 수입 해치백 시장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TV에 호평이 쏟아지면서 LG전자가 웃고 있다. 차세대 프리미엄 TV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LG전자의 올레드 TV '올인 전략'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 게임업계가 4분기 **모바일 게임 신작** 출시 시기를 저울질 하면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지난 7~8월 여름 성수기부터 베일에 가려졌던 대어(大漁)급 신작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연말 게임 업계의 치열한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국제금융협회(IIF)의 '포트폴리오 할당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에서 한국은 0.498%포인트 올라 신흥국 가운데 최고의 **투자매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 **금융위원회**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은행업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 이번주(12~16일) **코스피**는 높아진 실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지표 둔화 확대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따라 1940~2020선에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광고에서 소비자를 현혹하기 쉬운 '누구나', '무차별' 등 근거 없는 과장 표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 지배구조 개선, 호텔롯데 상장, 면세점 인허가 등 난제가 쌓여있는 가운데 다시 터진 **제2롯데 사태**가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에 일고 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을 막기 위해 이번 분쟁을 시작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재계에서는 롯데 오너가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롯데 경영권 분쟁, 창업주가 법정 서야 끝난다

<신격호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 '판단능력 부재 여부' 가장 큰 쟁점
장기화 우려… 의미없는 소송, 그룹만 힘들어질 듯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법조계는 신격호(94·사진) 총괄회장이 법정에 서야지만 경영권 분쟁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62·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 부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신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진 등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본에서는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신 대표 측에 따르면 롯데홀딩스 정관은 긴급이사회 소집 시 재적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28일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해임하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할 당시 대표이사·회장인 신 총괄회장은 이사회 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을 배제하고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 회장은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집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 신 총괄회장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뜻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을 선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 교수는 "결국 신 총괄회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은 좋든 싫든 아버지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입증책임이 있다"며 "긴급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인 신 총괄회장을 배제한 이유가 판단능력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일본도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있다. 신 총괄회장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입증돼야만 정당한 이사회로 성립한다"고 말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롯데그룹 제공

국내 소송에 대해서는 모든 한국 롯데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당한 신 대표가 다시 이사직을 되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민국 법에는 '이사 해임 무효소송'이 없기 때문에 신 대표는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만일 신 대표가 국내 법원에서 신 회장 측을 상대로 승리하더라도 배상금만 받을 뿐 직위 자체를 찾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분석이다.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분쟁이)장기화 되면 두 형제는 물론 롯데 그룹 자체도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다만 잃을 게 없는 신 대표보다 지키는 입장인 신 회장에게 현 상황이 좀 더 불리하게 작용 할 것"이라며 "결국은 아버지가 나서서 형제의 싸움을 말려야 하는데 신 총괄회장의 총기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은 "일본 소송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롯데홀딩스 정관이 실제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중이며 만일 정관에서 그렇게 규정했다면 이사회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반드시 통보했을 것"이라며 "제3자를 두고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문제없는 이사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뉴시스

신동빈 회장, 시내면세점 특허 연장 '올인'

롯데家 분쟁 속 경영행보 가속화

소공동·잠실월드타워 지키기
상생2020 선포식 이례적 참석

신동빈(61·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11월 7~8일로 예정된 시내 면세점 특허권 심사를 앞두고 서울 소공동과 잠실 월드타워점 등 롯데면세점 두 곳의 사업권 지키기에 나선다.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은 올해 말로 면세점 허가기간이 종료된다.

최근 롯데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당초 당연하게 여겨졌던 면세점 특허권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 회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1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7-26(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E1부지) 롯데면세점 제2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리는 면세점 특허 관련 상생 202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다.

이날 선포식에서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의 사회 공헌,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확대 방안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면세 물류' 경쟁력의 상징인 인천통합물류센터를 배경으로 서울 롯데면세점 두 곳의 특허 재승인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신 회장의 행사 참석은 당초 일정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그룹 내에서는 계열사 행사에 신 회장이 참석해 지원 사격을 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잠실 월드타워점 두 곳의 연매출은 2조6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한국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 이익의 80% 이상이 롯데면세점에서 나올 정도로 그룹 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호텔롯데가 한국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면세점 특허권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 신 회장의 그룹 지배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신 회장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면세점이 서비스업의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며 사업권 재승인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하면서 면세점 재승인 여론을 주도했다.

이처럼 신 회장의 면세점 특허 유치에 대한 관심과 대외 활동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보다 더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사업의 주체도 아닌 그룹 총수가 계열사의 면세점 사업을 지키기 위해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롯데그룹의 면세점 특허권 확보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오른쪽) 노동당 제1비서가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손을 잡고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화답하고 있다.



북한이 10일 열린 열병식에서 공개한 탄두 개량형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북한 방송의 아나운서는 핵탄두가 탑재됐다고 주장했다.

美日 포위망 구축에 다시 손잡는 北中

北 노동당 70년 열병식 후 동북아 기류변화

北, 열병식서 中 자극 최소화 미사일 발사·핵실험 언급 없어

中 신화통신 "고위급 방북" 北 김정은 방중설도 솔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 관계 복원의 신호탄이 올랐다.

2013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에 등을 돌렸던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포위망이 현실화되자 다시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이 내민 손을 밀어내지 않았다. 중국을 의식한 듯 열병식에 앞서 예상됐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지 않았다. 열병식에서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핵실험 언급은 없었다. 심지어 열병식에서는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최소화했다.

북중 관계 복원을 원하는 중국의 의도는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중국 언론들의 보도에서 확인된다.

중국 공산당의 대외 메시지 전달 창구인 환구시보는 열병식 전날인 9일 사설에서 "핵문제에서 중조(중북) 간에 화해하기 힘든 수준의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중조 관계의 전체적인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며 "조선(북한)에 있어,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원조 제공국이다. 중국에 있어 미래의 주요 도전은 태평양 쪽에서 오는 바 (중국에) 우호적인 조선은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또 "외부 세계가 끊임없이 중조 관계를 들쑤시고, 중국 내 일부 인사들도 '조선을 포기하라'고 하나 이는 근시안적이고 충동적인 주장"이라며 "조선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이 냉랭했던 북중 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의 열병식을 전후해 11일까지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신화통신은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류 상무위원의 방북에 '고위급의 방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지도부의 관계 복원 의지가 담겼다는 메시지였다.

류 상무위원의 행보는 이 같은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방북 당일인 9일 류 상무위원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친서에서 "양측 지난 세대 지도자들이 만들고 길러온 중조 전통우의는 쌍방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서, 우리는 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 관계 발전을 대하며, 양국 관계를 지키고 다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새로운 정세 아래 우리는 중조 관계의 큰 틀과 양국발전의 큰 계획으로부터 조선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심화하여 중조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류 상무위원은 여기에 덧붙여 "김 제1비서의 영도 아래 조선 당과 인민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등에서 긍정적 진전을 이룩했다. 중국 당과 인민은 이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로 김정은 체제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선과 한 길에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 강화 정신에 따라 양측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고 각 계층 및 영역 교류를 증진하며, 양자 경제무역 실무협력을 촉진하여 중조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이에 대해 "조중(북중) 관계는 단순한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피로써 맺어진 친선의 전통에 뿌리를 둔 전략적 관계로 되어 왔다. 김일성 주석 동지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동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대외사업업적과 유산도 조중 친선"이라며 "전통은 역사책이나 교과서에 기록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계승하고 빛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 상무위원은 이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제1비서와 중조 전통 우의를 계승 이행하기 위한 견해를 교환하고 광범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 고위층 교류와 정치적 소통을 유지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하며,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서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제1비서의 실천 요구에 대한 화답이었다.

류 상무위원은 10일 열병식에서도 주석단에 올라 김 제1비서의 옆자리에 섰다. 북중 관계 복원을 상징하는 모습이었다. 김 제1비서는 열병식 육성 연설에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미제(미국)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다"고 말했을 뿐 중국이 우려하는 핵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열병식에서도 중국이 우려할 만한 신무기 공개는 최소화했다. 기존 방사포보다 사거리를 늘린 300mm 신형 방사포와 탄두가 개량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도만을 새로 선보였을 뿐이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위협적인 무기는 열병식에 등장하지 않았다. 북한이 예상과 달리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지 않은 것도 중국의 자제 요구를 북한이 수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시 주석의 친서에 김 제1비서를 중국에 초청하는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번 중국 대표단의 방북을 계기로 김 제1비서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정부여당, 70년대로 회귀… 야당, 여전히 운동권 문화"

안철수 '낡은 진보' 청산 구상 발표

김대중·노무현 극복 제안 당 수권비전委 설치 등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1일 야당이 여전히 운동권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7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왜 운동권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성장에 무관심한가. 우리는 왜 국가안보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는가. 우리는 왜 60대 이상의 국민에게 지지를 잃었는가. 우리는 왜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당은 노쇠화 되고 있는가. 왜 새누리당은 40% 이상의 국민지지를 받는데 우리 당의 지지는 정체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배타성, 과도한 이념화에 따른 무능, 정치행태와 정책기조의 불안함, 새로운 발전 담론과 개혁의제를 선도하지 못한 무비전 등 4가지를 '낡은 진보'라고 규정하고 당내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4대 기조로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수구의 새로운 정치구도 짜기, 선과 악 또는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책임전가 등 관료주의 병폐 제거,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 척결,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극복 등을 제시했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2007년 이후 우리 당은 새 비전과 역량을 준비하지 못했다. 두 분의 명망에 기대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5가지 실행방안으로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과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태스크포스(TF) 설치, 자기반성 차원의 김한길-안철수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송병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혁신의 두번째 과제로 '낡은 진보' 청산을 주장하며 당 지도부에게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평가제 이달 도입… 반쪽제도 전락 우려

세부 평가기준 채비 마쳐 하위 검사는 공개 안할 듯

인권보호 측면 도입 환영 법관평가제 답습 우려도

강압적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해 실시될 예정인 검사평가제가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의 채비를 마치고 이달 도입된다. 폐쇄적인 검찰의 강압 수사 근절과 변호사들의 악용 등 복잡한 셈법이 엇갈린 검사평가제 안착에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검사평가제 실시를 위한 준비는 마쳤다. 조만간 실행할 계획인데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관평가제에 이어 하창우 회장의 두 번째 기획이기도 한 검사평가제는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6월 독일 등을 방문해 해외 검찰 제도를 연구·조사해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미란 기자

도입취지의 핵심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다. 검찰 조사 중 피의자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변협은 형사 사건 수임 변호사들이 참여한 평가서를 취합,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보내 검찰 인사 자료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

세부적 평가 기준은 마련됐지만 평가와 관련 상위·하위평가 검사를 모두 밝힐 지는 미지수다. 10월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변협은 "상위 득점자는 공개하고 하위 득점자는 비공개하는 법관평가제와 동일하게 갈지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두 공개할 시 구체적 사건의 내용이나 평가 내용을 공개할 지에 대해서도 변협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검사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서 인사자료 참고용으로만 쓰이게 될 경우 실질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청은 평가가 좋지 않은 검사에 대해 쉬쉬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제 식구 챙기기를 우려한 뒤 "외부에 밝혀질 경우 결국 검찰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검사가 공개돼야 불합리한 수사관행이 개선되고 검찰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변호사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는 법관평가제를 답습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은 평가가 아닌 조사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변협 측은 "모든 변호사들이 형사 소송을 맡는 것은 아니다. 참여율이 낮다고 해서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변호사가 한 차례 부정 평가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낙인찍기 식의 평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변호사들은 대체로 검사평가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구체적 평가 절차와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수사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검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검사 출신인 유능종(법무법인 유능) 변호사는 검사평가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던 지난 8월 기자와 통화에서 "인권 보호 측면이라는 점에서 도입을 환영한다"면서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바이오 특허권 독점 연장… TPP 가입 대가는 국민의 생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9일 위키리크스 지적재산권 협정문 유출 美 소비자단체 "대형 제약업체에 독점권 부여"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서를 입수해 9일(미국시간) 공개했다. 협정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위키리크스는 동시에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도 함께 내놨다. TPP 가입의 대가는 국민들의 생명이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여기에 담겼다.

공개된 지적재산권 협정문은 크게 10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섹션A는 일반규정, 섹션B는 협력조항, 섹션C는 상표권, 섹션D는 지리적 색인, 섹션E는 특허, 섹션F는 산업디자인, 섹션G는 저작권, 섹션H는 제재조항, 섹션I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섹션J는 가입국별 세부항을 담은 부록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 신약에 대한 내용은 섹션E와 부록에 담겨 있다.

관련 섹션 내용을 종합하면 바이오 신약의 특허권 독점기간은 최소 5년이 필수기간이다. 하지만 가입국은 최소 5년에 더해 모두 8년의 독점기간과 비교될 만한 시장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조치를 선택하거나 8년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독점기간은 8년 이상이다. 부록을 보면 페루와 베트남은 10년을 이행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단체인 퍼블릭시티즌은 이에 대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을 막는 협정"이라며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또 "바이오 신약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고도 했다.

이 단체의 피터 메이바덕은 "TPP가 가입국에서 비준된다면 환태평양 국가의 국민들은 이 협정이 정한 규칙대로 살아야 할 것"이라며 "대형 제약업체를 위한 새로운 독점권 부여로 인해 TPP 가입국들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위태로워 질 것이다. TPP는 (국민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단체의 버쿠 카일릭도 "독점적 제약업계는 이번 TPP 협정 타결로 사람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며 많은 것을 얻었다"며 "그들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위선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키리크스는 이날 TPP 협정문 입수 직전 백악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제약업계 대표들이 TPP 협정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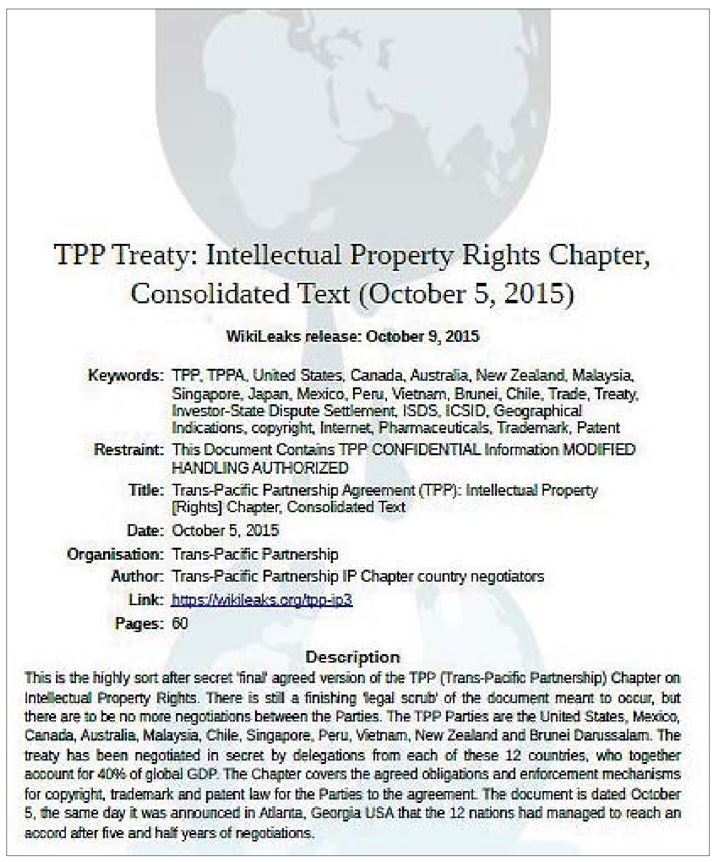
메이바덕의 분석에 따르면 TPP 협정으로 인해 제약업체들 간 '제네릭 의약품' 경쟁은 시들해지고 이에 따라 의약품 가격은 고가 행진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제네릭 의약품'이란 일반적으로 이미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제네릭 의약품'은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결과는 특히 신흥국 국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TPP 협정은 신흥국 가입국들에게 선진국과 같은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흥국 제약산업은 극도의 독점현상이 발생해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될 것이란 설명이다.

신흥국들도 이점을 모른 것이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2년의 독점기간이나 최소 8년의 독점기간을 주장했다. 하지만 신흥국들은 TPP 협상에서 5년 이상의 의약품 특허 독점기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이들 중 5개국들은 어떠한 독점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종 결과는 미국 측이 원하는 결과였다. 다만 표현이 모호할 뿐이다.

카일릭은 "협정문에서 의도적으로 모호한 언어를 사용했다. 이는 향후 제약업체들에게 더욱 긴 독점기간과 이익을 주기 위해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TPP Trea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apter, Consolidated Text (October 5, 2015)

WikiLeaks release: October 9, 2015

Keywords: TPP, TPPA,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Malaysia, Singapore, Japan, Mexico, Peru, Vietnam, Brunei, Chile, Trade, Treaty,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ICSID, Geographical Indications, copyright, Internet, Pharmaceuticals, Trademark, Patent
Restraint: This Document Contains TPP CONFIDENTIAL Information MODIFIED HANDLING AUTHORIZED
Titl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apter, Consolidated Text
Date: October 5, 2015
Organisation: Trans-Pacific Partnership
Author: Trans-Pacific Partnership IP Chapter country negotiators
Link: https://wikileaks.org/tpp-ip3
Pages: 60

Description

This is the highly sort after secret 'final' agreed version of the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Chapter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 is still a finishing 'legal scrub' of the document meant to occur, but there are to be no more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The TPP Parties are the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ustralia, Malaysia, Chile, Singapore, Peru, Vietnam, New Zealand and Brunei Darussalam. The treaty has been negotiated in secret by delegations from each of these 12 countries, who together account for 40% of global GDP. The Chapter covers the agreed obligations and enforcement mechanisms for copyright, trademark and patent law for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The document is dated October 5, the same day it was announced in Atlanta, Georgia USA that the 12 nations had managed to reach an accord after five and half years of negotiations.

유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건.

로또복권 제671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7	9	10	13	31	35	24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3,722,322,844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1,698,929
3등	5개 숫자 일치	1,395,697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대표이사 편집국장 이장규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수능 고득점 기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여 앞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자녀를 위한 행복한 동행 111일 화엄성중기도'에서 수험생 가족을 둔 불자들이 두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다. 2016년도 수능은 11월 12일 실시된다. /연합뉴스

"내달 수능, 모의평가 수준으로 쉽게 출제"

김영수 교육과정평가원장
대학 변별력확보 문제없어
이번엔 출제 오류 없을 것



올해 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 6월과 9월 치른 모의평가 수준으로 비교적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 교육과정평가원장은 고난이도 문제 출제 여부에 대해 "정말 어려운 수학, 영어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그 한 문제를 맞히려고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면서 모의 평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6월 치러진 모의평가는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국어 A형 1.91%·B형 4.15% ▲수학 A형 1.55%·B형 0.98 ▲영어 4.83%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월 치러진 모의평가도 만점자 비율이 ▲국어 A형 6.12%·B형 1.29% ▲수학 A형 1.17%·B형 4.11% ▲영어 4.64%로 6월 수준과 유사하다. 내달 치러질 수능의 수준도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6·9월 모의평가가 쉬웠다"는 지적과 관련, "만점자를 보면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모의평가 수준이면 대학들이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영어영역 절대평가 세부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국영수 등 주요 과목과 부모의 가정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한 뒤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려면 5등급이 좋지만 교육부가 대학 전형요소로 활용되는 상황을 감안해 9등급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절대평가 등급만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원점수가 90점이든 100점이든 동일하게 1등급이 반영된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상위권 대학이 영어영역에 관한 대학별 고사를 추가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영어 절대 평가 도입으로 인한 수능의 변별력 상실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선 출제 오류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산하 수능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출제위원 다양화 ▲출제단계 오류 가능성 차단 ▲검토과정에서 오류 점검 등을 담은 '출제 오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이를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적용, 출제위원들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재해특약에 '자살' 있어도 보험금 지급 안해도 된다"

法 "고의는 재해 아냐"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해는 자살이 아닌 우발적 사고를 뜻하는 만큼 해당 약관은 주계약의 약관을 그대로 붙인 오기(誤記)라는 취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2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은 이성 문제 등으로 그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부모는 A씨가 들었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든 보험의 주 계약과 특약에는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똑같은 내용의 약관이 있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미란 기자

로스쿨 변호사 "河 변협회장 고발·탄핵 추진"

'사시존치 로비' 정면대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변호사들이 하창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정치권 전방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자체 단체를 구성해 세력화한 이후 한 달 만에 벌어진 정면 충돌이다.

로스쿨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의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회장은 11일 "변협이 로스쿨 변호사들을 공격하려고 특정 여당 정치인 편에 붙거나 야당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하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의 회장 직속 기구 '변협 사시존치 태스크포스'(TF) 내부문건에 따르면 사시존치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청와대 인사를 만나고 사시존치 반대 의원 지역구에서 시위를 하면서 야당 친노·비노 계파를 갈라 '이이제이'(오랑캐를 오랑캐로 제압)하자는 계획 등이 적혀 있다. 이 문건은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TF팀이 만든 또다른 문건에는 올해 4월 관악을(乙) 보궐선거에 적극 개입해 사시존치를 위한 '국회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사시존치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 회장은 "변협은 전국 모든 변호사를 대변하는 법조 삼륜의 한 축이며 변협 회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권, 특검 추천권 등 20여 가지 법적 권한을 지닌 막강한 자리다. 그런 만큼 변협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현재는 단순히 이익단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TF 내부문서에 변협이 가진 로스쿨 회원의 주거지·출신 대학·전공 정보를 가공해 사시존치 뒷받침 자료로 쓰려 한 부분을 언급, "하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변협에 내부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변협 회칙에는 회장의 탄핵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 법협은 하 회장과 TF팀의 직무가 위법하거나 회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사퇴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미란 기자

층간소음 無! 화재걱정 無! 세대간층고 3M!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

로얄팰리스만의 안전한 현금카드를 가지세요!

1% 저금리시대 투자대안! 3,000만원 투자로 月 70만원을 번다



[신도시 상권!]
[대학가 상권!]
[스퀘어가든 상권!]

분양면적 보다 넓은 전용면적
로얄팰리스 상가 특별분양!!

* 본 홍보물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것으로, 실제와는 다르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배곧신도시 21,541세대 중심위치
-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 45.7만명 산업단지 서울대 임대수요
- 저비용관리비 지역냉·난방 시스템적용
- 전세대 3M층고 LED조명
- 수도권 신도시 최저 분양가 590만원대 (3.3㎡ 당)
- 층간소음無 소닉스시스템 시공
- 화재위험無 LG하우시스 시공
- 중도금 60% 무이자

1% 저금리시대 투자대안! 3,000만원 투자로 月 70만원을 번다

입지 엘리트 송도신도시, 인천논현, 송산 그린시티를 잇는 서해안개발의 미래비전 한가운데 위치 45만명 시흥중심개발지, 단지 인근 7만평 배곧중앙공원과 6km수변공원의 힐링환경

생활 엘리트 단지 인근 서울대 이전(병원 포함), 신세계아울렛, 복합쇼핑몰, 롯데마트 등 입점 초교5, 중학교2, 고교2 인접(일부 서울대 교육지원),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입점

교통 엘리트 4호선 오이도역 1km, 수인선 월곶역 3km 인접, 서해안로-군자로 및 월곶대교 확장 제3경인고속도로(정왕IC), 영동고속도로(월곶IC), 서해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접

수요 엘리트 시화·반월공단, 남동공단 근로자 약 38만 여명 근로자가 집중하는 풍부한 수요 배곧신도시 서울대, 아울렛 종사자 약 7280여 명, 시화MTV 약 7만여 명 고용창출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 청약방법 | ■입금계좌 : 기업 021-644-666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주)로얄
* 미계약시 청약금 전부 환불됨.

서울대 신도시에 투자가치로 빛난다

문의전화 02)6334-9395

시행 (주)로얄 / 베스트홀딩스(주) 시공 다인건설(주) 신탁 KOREA trust 코리아신탁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

물결같은 디자인·스포츠카 부럽지 않은 폭발력

시승기

인피니티 Q50S 하이브리드

제로백 5.1초의 강력한 힘
세계 10대 VQ 엔진 탑재
고성능은 물론 고연비 충실




'인피니티 Q50S' 엔진룸.

폴크스바겐 사태로 환경차가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문제로 내연기관과 전기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의 대중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는 주력세단 'Q50S 하이브리드'를 필두로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우수한 디자인, 가격경쟁력과 세계 10대 엔진 등이 매력적인 'Q50S 하이브리드 에센스' 모델을 타고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왕복 100㎞ 구간을 달려봤다.

Q50S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전면에서부터 물 흐르는 듯 표현한 유려한 곡선 디자인이 측면과 후면까지 이어지면서도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같은 디자인은 Q50S가 주행할 때 차량 위·아래 부분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 동급 최고 수준으로 낮은 공기 저항계수(0.26Cd)를 실현한다. 또한 주행 시 차량을 들어 올리는 양력을 최소화시킴으로써(Zero Lift) 안정감은 물론 더욱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을 제공한다.

Q50S는 50kW(68마력) 전기 모터와 3.5리터 V6 가솔린 엔진(306마력)의 조합으로 탄생된 하이브리드 모델로 총 364마력의 최고출력을 자랑한다.

최대토크 35.7kg·m를 발휘하는 강력한 엔진이 제로백(출발 후 시속 100㎞에 도달하는 시간) 5.1초라는 놀라운 성능을 발휘한다.

가속페달에 밟는 순간 좌석에 몸이 밀착되면서 순식간에 과속된다는 느낌을 준다. 수차례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된 VQ 엔진은 듣기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자동차 마니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속도감을 안겨준다. 특히 '전자식 조향 장치 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 시스템이 탑재돼 더욱 빠른 응답과 정확한 핸들링이 가능하다.

저속에서는 모터와 엔진이 번갈아가며 작동 하지만 운전자는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 느끼기 힘들 정도로 부드럽게 작동한다. 고성능은 물론 하이브리드의 기본기인 고연비에도 충실하다.

Q50S는 인텔리전트 듀얼 클러치 컨트롤(1모터 2클러치 방식)을 지원하는 '다이렉트 리스폰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12.6㎞/ℓ의 공인 복합 연비를 구현했다.

V6 3.5ℓ의 대형엔진을 탑재하고 시승의 특성상 고속구간에서 스포츠모드로 150㎞ 이상의 가속과 감속을 반복했음에도 평균연비가 9.9㎞/ℓ 이상을 유지했다.

일본 특유의 첨단 안전장비들이 안정감도 준다. 주행중 전방 추돌 예측을 경고하는 시스템(PFCW)이나 액티브 레인 컨트롤 시스템(ALC), 차선이탈경고 시스템(LDW) 등은 주행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실내 디자인도 특이하지만 편리하다. 콘솔에는 상하로 듀얼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탑재돼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했다. 8인치 상단 스크린은 내비게이션이 탑재됐고, 7인치 하단 스크린은 스마트폰이나 USB를 이용해 개인 취향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 Q50S 하이테크의 국내 판매 가격은 6120만원이다. 일부 편의사양을 제외한 에센스는 500만원 저렴한 5620만원이다.

/김종훈 기자 fun@metroseoul.co.kr



9일 오준연 북경현대 정비부 이사대우(왼쪽부터), 자푸싱 중국 질량협회 회장, 용우쥔 북경현대 품질관리부 부장이 중국질량협회가 발표한 '2015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기아차, '中 고객만족도' 8개 차종 1위

중국질량협회 주관
175개 차종 대상 진행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자사 8개 차종이 1위에 올랐다고 11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중국질량협회가 9일 발표한 '2015 고객만족도 조사(CACSI)'에서 베이징현대의 밍투와 투싼ix 등 5개 차종과 둥펑위에다기아의 K3, KX3 등 3개 차종이 차급별 종합만족도·올해의 신차 부문 1위에 올랐다.

중국 고객만족도 조사는 중국 정부 산하기관인 중국질량협회의 고객업무부가 주관한다.

올해 자동차 부문 평가는 총 47개 메이커, 57개 브랜드의 175개 차종을 대상으로 중국 주요 59개 도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차량의 ▲디자인 ▲성능 ▲품질 신뢰성 ▲정비·판매 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 만족도 결과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발표됐다.

7만 위안 이상 소형차 부문에서 둥펑위에다기아의 K2가 80점으로 4년 연속 해당 차급 1위에 올랐다.

10만~15만 위안 중형차 부문에서는 베이징현대의 랑둥과 둥펑위에다기아의 K3가 1위에 올랐다.

베이징현대의 밍투는 지난해 10만 위안 이상 신차에 이어 올해도 25만 위안 이하 중대형차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에서는 베이징현대의 ix25, 투싼ix, 신형 싼타페와 둥펑위에다기아의 KX3가 각 차급 1위에 올랐다.

베이징현대 투싼ix는 15만~20만 위안 SUV 부문에서 8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만~30만 위안 SUV 부문에서는 신형 싼타페가 81점으로 1위에 등극했다. /정용기 기자

볼보, 해치백 시장 '강자'로 부상

라인업·서비스 강화나서
구매시 보증기간 5년 제공


볼보 V40

볼보자동차코리아가 고객의 취향에 한발짝 다가가는 다양한 모델과 확장된 보증기간을 앞세워 국내 수입 해치백 시장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볼보에 따르면 프리미엄 모델인 V40은 엔트리급 트림을 다양화했다. 또 D3 엔진을 탑재한 키네틱과 모멘텀 출시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8월부터는 수입차 업계 최고·최장 수준의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2030세대가 급부상하면서 업체들은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하고 있다. 볼보 측은 "그 중 해치백이 국내 자동차 시장의 다양화를 이끈 주역"이라고 전했다. 올해 볼보 V40 D3를 포함해 아우디 A1, BMW 1시리즈, 푸조 308 1.6 등의 다양한 해치백 모델이 출시됐다.

볼보 V40은 세련된 외관과 인체공학적 설계가 특징이다.

내관은 운전자가 스칸디나비안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스웨덴 브랜드답게 내관 곳곳에는 북유럽 특유의 감성과 실용성이 드러나 있다.

공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V40 차량의 2열 시트를 완전 평면으로 접히게 만들어 수납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

쇼핑백 안의 물건이 쏟아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 트렁크 바닥에 쇼핑백 홀더를 설치했다.

또한 모든 트림에 기본 사양으로 파노라믹 선루프를 탑재했다. 2열 쪽부터 개방되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전동식 블라인드는 강한 햇빛으로부터 운전자의 시야를 보호해준다. 동시에 뒷좌석 고객들에게 개방감을 선사한다.

볼보가 개발한 저속 추돌 방지 시스템인 '시티 세이프티', 레이더 기반의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BLIS)'도 기본 사양으로 갖췄다.

이밖에도 차량 충돌 시에 시트 포지션을 변경해 경추 부상을 최소화 해주는 '경추 보호 시스템(WPS)', 측면 충돌 시 발생하는 충격을 차량 바닥에 흡수·분산해 차량 내부 공간의 변형을 방지해주는 '측면 보호 시스템(SIPS)' 등 안전사양을 전 트림에 적용했다.

아울러 운전자의 주차를 돕는 '파크 어시스트 센서'와 뒷좌석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전자식 뒷좌석 차일드 도어락' 등의 편의사양도 공통 적용했다.

V40 D3는 직렬 4기통 2.0ℓ 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 150마력과 최대토크 32.6kg·m의 힘을 낸다. V40 D3 키네틱과 모멘텀의 국내 판매 가격은 각각 3625만원, 3931만원이다.

이와 함께 볼보는 D3를 비롯한 2016년형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 모두에게 무상 보증기간을 5년 또는 10만㎞까지 연장 제공하고 있다.

해당 보증 기간 동안 소모성 부품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정용기 기자 yonggi@

LG '올레드 TV' 올인전략 빛 발하나

해외 IT매체 호평 릴레이
시장 판도변화 가능성도
7년내 10조원대 성장 전망
日·中과 차별화 전략 관건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에 설치된 LG 올레드 TV. /LG전자 제공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TV에 호평이 쏟아지면서 LG전자가 웃고 있다. 차세대 프리미엄 TV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LG전자의 올레드 TV '올인 전략'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올레드 TV는 해외 유수의 정보기술(IT) 평가에서 '최고화질 TV'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유력 일간지 USA투데이의 정보기술(IT)전문 평가매체 '리뷰드닷컴' 제품 평가에서 LG 올레드 TV는 1~3위를 싹쓸이 하며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에 선정됐다.

앞서 '테크레이더'와 '씨넷' 'HDTV 테스트' 등 미국·영국의 IT 전문 매체도 LG올레드 TV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미국 디스플레이 전문가 그룹인 디스플레이메이트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인 SUHD TV와의 1대1 비교평가에서 LG 올레드 TV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특히 IT전문 매체들은 LG올레드 TV의 화질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색재현율·밝기·명암비·응답속도 등 올레드가 현존하는 디스플레이 가운데 가장 뛰어다나는 분석이다. 또 초고화질(UHD) 시대로 접어들면서 화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올레드가 HDR 등 차세대 영상 기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자업계는 향후 2~3년 안에 올레드 TV가 프리미엄 TV 시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액정표시장치(LCD) TV 시장이 과열 경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화질과 디자인 등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제품이 올레드 TV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LG전자도 올레드TV 가격을 잇달아 낮추는 등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레드 TV시장은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레드 TV 시장은 오는 2022년 90억 달러(약 10조4000억원)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올레드 TV 시장 규모는 4억 달러(약 4600억원) 수준이었다. 올레드 TV 시장에 가세하는 해외 제조사들도 늘고 있다. 일본의 파나소닉을 비롯해 중국의 콩카·창홍·하이얼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현재 세계 TV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올레드 TV에 소극적이다. 삼성전자는 RGB(적녹청) 방식으로 올레드 TV용 패널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2017년 쯤에나 올레드 TV를 재출시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분간 LG전자가 올레드 TV 시장을 리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TV 시장의 판도 변화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발 빠르게 올레드 TV를 준비한 LG전자가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홀로 이끌던 올레드 TV 시장에 일본, 중국 제조사가 가세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된 만큼 시장 리더십을 지키기 위한 LG전자의 차별화 전략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 '버블샷 애드워시' 판매량 1만대 넘어

국내출시 6주만에 돌파
동급용량의 70% 차지



삼성전자는 자사 '버블샷 애드워시' 드럼세탁기가 국내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 9월 출시 이후 약 6주 만에 국내 판매 1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삼성전자 동급 용량의 드럼세탁기 전체 판매 비중의 약 70%를 차지한다.

삼성 '버블샷 애드워시'는 세계 최초로 도어에 작은 창문인 '애드윈도우'를 채용해 언제든지 세탁물을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세탁·헹굼·탈수 등 작동 중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잠시 작동을 멈춘 후 '애드윈도우'만 열어서 세탁물을 추가하고 다시 작동 시킬 수 있어 물과 세제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세탁물을 헹굼·탈수 등 필요할 때만 넣을 수 있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캡슐형 세제나 시트형 섬유 유연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세제와 세탁보조제도 편리하게 투입할 수 있다. 작동 중인 '버블샷 애드워시'의 '애드윈도우'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열리지 않도록 설계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높은 세탁력과 에너지 효율 절감은 물론 세탁기를 작동시킨 후에 발생하는 번거로움까지 해결한 '버블샷 애드워시'의 소비자를 배려한 혁신 기술에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버블샷 애드워시'가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드럼세탁기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혁신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선물 와르르

삼성전자, 내달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고객 대상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페이 신나는 불금의 행복' 이벤트를 12일부터 실시한다.

다음달 13일까지 5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매주 금요일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대상이다. 추첨을 통해 패션, 뷰티, 여행, 문화, 외식 등 매주 다른 테마의 선물을 총 30만명에게 증정한다.

응모와 참여는 12일부터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초 1회 응모 이후 매주 금요일 삼성 페이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이벤트 참여가 된다.

이벤트는 패션 테마를 시작으로 뷰티, 여행, 문화, 외식 순서로 진행된다. 백화점 상품권, 화장품 교환권, 카메라, TV, 외식 상품권 등 각 테마에 맞는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매주 열리는 이벤트 테마와 자세한 경품 내역은 매주 월요일 삼성전자 온라인 스토어(http://store.samsu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5일 후인 매주 수요일에 발표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삼성페이를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더욱 즐겁고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금요일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사은 혜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결제 문화인 삼성페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LG, 포터블 스피커 라인업 강화

상반기 출시 2종 포함 모두 9종
오토 뮤직 플레이 등 편의성 강화



LG전자가 포터블 스피커 라인업을 확대하며 국내 오디오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11일 포터블 스피커 미니 6종, 포터블 스피커 1종 등 모두 7종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올 상반기에 출시한 포터블 스피커 2종을 포함, 모두 9종의 라인업을 확보했다.

포터블 스피커 미니는 휴대성이 뛰어나다. 이 제품의 무게는 기존 포터블 스피커 대비 30% 이상 줄어든 470g으로 그란데 사이즈의 커피 한 잔 무게와 비슷하다. 부피도 기존보다 약 20% 작아졌다. 한 번 충전으로 1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 소풍, 캠핑 등에 유용하다.

LG전자는 포터블 스피커 미니에 화이트 라임, 화이트 골드, 화이트 실버, 블랙 실버, 화이트 오렌지, 블랙레드 등 다양한 색상을 적용했다.

LG전자는 외관에 고급 원목 느낌의 다크 브라운 색상을 적용한 포터블 스피커도 출시했다. 포터블 스피커 미니의 출하가는 15만9000원이다. 다크 브라운 색상의 포터블 스피커는 19만9000원, 전용 파우치는 3만5000원이다.

허재철 LG전자 한국HE마케팅FD담당 상무는 "다양한 색상과 탁월한 휴대성으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 국내 오디오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효성, 세계최대 섬유시장 中서 상생 행보

효성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인터필리에르 상하이 2015'와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2015'에 참가해 고객사와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상생협력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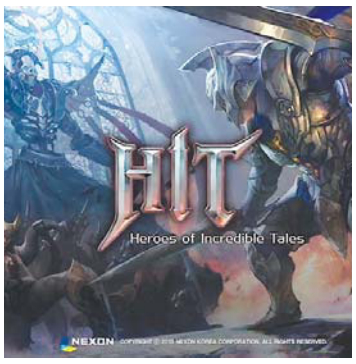
11일 사측에 따르면 효성은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란제리·수영복 원단·부자재 전시회 '인터필리에르'와 1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섬유 종합 전시회 '인터텍스타일'에 참가한다.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와 나이론·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제품을 홍보하는 동시에 고객사의 글로벌 판로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정용기 기자 yonggi@

모바일 RPG 야심작 대기… 연말 빅뱅 예고

<역할 수행 게임>

넥슨·넷마블·위메이드 등 4분기 신작 출시 저울질



넥슨의 '히트'



넷마블의 '이데아'

게임업계가 4분기 모바일 게임 신작 출시 시기를 저울질 하며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지난 7~8월 여름 성수기부터 베일에 가렸던 대어(大漁)급 신작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연말 게임 업계의 치열한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게임업체가 올해 마지막 분기를 기점으로 모바일 신작 출시에 돌입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넥슨의 '히트', 넷마블의 '이데아'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소울앤스톤' 등 자사의 야심작들이 잇따라 출시된다.

특히 이번 신작들은 회사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중요한 작품으로 구성돼 있어 향후 시장 성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게임업계 맏형 넥슨은 신작 모바일 게임 프로젝트를 가동한 상황이다. 넥슨의 모바일 RPG '히트'는 '리니지2', '테라' 등 인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을 개발한 박용현 대표가 처음 선보이는 모바일 게임이다. 모바일 RPG 경쟁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히트는 넷게임즈가 개발하고 넥슨이 퍼블리싱한다.

언리얼 엔진4가 탑재돼 고품질 그래픽을 지원하며 180개 스테이지로 구성된 '모험 모드'와 특수 스테이지, 유저간 결투장 등의 콘텐츠가 제공된다. 넥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비공개테스트(CBT)를 진행해 이용자들의 검증까지 마쳤다. 히트 공식카페에는 "히트의 그래픽과 콘텐츠에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다수 올라왔다.

넷마블게임즈도 레이븐을 이을 회사 신성장 엔진 '이데아'를 준비하고 있다. 넷마블앤파크에서 이데아는 지난 5월 신작 발표회를 통해 첫 공개돼 이목을 사로잡은 작품이다. 홍보 모델 역시 월드스타 이병헌을 선정해 큰 화제를 모은 상태다.

게임은 총 3년의 개발 기간을 거치며 온라인 RPG 게임급의 고품질 그래픽을 바탕으로 실시간 파티 플레이와 최대 21대 21의 실시간 대규모 길드전, 단행본 4권 분량의 방대한 세계관 등 압도적인 스케일의 콘텐츠를 보유하며 레이븐에 이어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이데아는 현재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시작해 흥행몰이에 나섰고, 4분기 출시를 목표로 담금질이 한창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RPG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연말에는 넥슨, 넥슨 등 대형게임사들의 RPG 신작이 쏟아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기 연예인과 IP를 활용한 대형 마케팅을 동원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 신작 출시 후 마케팅과 판촉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마케팅과 투자 비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게임 출시에도 신중함을 기하고 있어 올해 신작 출시가 전체적으로 미뤄진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지난 8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회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왼쪽)과 루이민 차이나유니콤 총재가 통신과 신규 사업 분야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T, 차이나유니콤과 신사업 협력

통신·신규사업 강화 맞손

SK텔레콤과 중국 차이나유니콤은 통신과 신규 성장 사업 영역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회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지난 8일에 가진 협약식에는 장동현 SK텔레콤 사장과 루이민 차이나유니콤 총재가 양사를 대표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5G·글로벌 로밍·플랫폼·벤처 투자 및 생태계 육성' 등 통신과 신규 사업에서 고객 혜택을 제고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5G 표준화와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글로벌 로밍 서비스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로밍서비스의 경우 연간 1000만명 이상의 활발한 한·중 교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가입자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제휴 상품 출시가 논의될 전망이다.

또 신규 사업 영역에서 양사는 플랫폼 연계 제품·서비스와 OTT(온라인 기반 동영상) 서비스 등의 플랫폼 시장 개척에 힘쓰기로 했다.

벤처 생태계 육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혁신 잠재력을 보유한 벤처 등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창업투자 인큐베이팅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장 사장은 "차이나유니콤과의 협력을 통해 양사 고객들에게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해 양사의 성장은 물론 한·중 양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KT-경기창조센터 '헝가리 ITU 텔레콤 월드' 참가

중소·벤처 기업 전시 지원 기가-LTE 서비스 시연도



KT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ITU 텔레콤 월드'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가토피아'라는 주제로 KT 서비스 '기가 LTE' 시연과 함께 국내 강소기업 5개사의 전시 참여를 지원한다.

ITU 텔레콤 월드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 전시회 및 포럼으로 매년 세계 각국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까지 마련됐다.

KT와 경기창조센터는 국내의 유망 중소기업과 경기창조센터 참여 스타트업 중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사업성을 가진 5개 기업을 선정했다. 자사의 서비스와 기술력을 전시 홍보하며 해외 업체들과의 사업 협력 기회를 마련해 글로벌 사업확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시는 KT가 LTE와 WIFI(와이파이)를 병합해 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기가 LTE 서비스를 시연한다. 또 다산네트웍솔루션즈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스위치 장비를, 기산텔레콤이 WIFI AP를 선보인다.

경기창조센터 입주 기업 중에는 프라센과 247코리아, 이리언스 등이 참여해 자사의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문경 기자

KT, 슈틸리케 감독 1주년 기념 '기가 인터넷 페스티벌'



내일 상암월드컵경기장서 기가인터넷의 탁월한 속도 체험

KT가 축구 국가대표팀 자메이카 친선경기가 열리는 13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기가 인터넷의 탁월한 속도를 체험하고, 슈틸리케 국가대표팀 감독의 데뷔 1주년을 축하하는 '기가 인터넷 페스티벌'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가 인터넷 페스티벌은 오후 5시부터 본 경기 시작 전인 8시까지의 1부 행사, 경기가 끝난 밤 10시부터 11시까지의 2부 행사로 구성된다. 상암월드컵경기장 북문 광장에서 열린다.

1부에서는 e-스포츠 경기 '기가 인터넷 스타크래프트2'가 열리고, 2014 월드컵 공식 응원가를 부른 키밥 밴드의 응원 무대도 마련될 예정이다. 2부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깜짝 등장해 1주년에 감사하는 무대인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한국, 투자매력 넘쳐… 신흥국 중 최고"

국제금융협회 보고서
31개국 가운데 최대상승
자금 유출강도 약해
신용등급은 한단계↑

한국이 신흥국 가운데 최고의 투자매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11일 국제금융협회(IIF)의 '포트폴리오 할당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에서 한국은 0.498%포인트 올라 신흥 31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IIF가 시장정보업체 EPFR의 유동성 유출입 집계 등을 토대로 각국의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0.438%p), 인도(0.414%p), 멕시코(0.376%p), 폴란드(0.301%p)가 2~5위에 올랐다.

필리핀(0.054%p), 말레이시아(0.037%p), 러시아(0.023%p), 레바논(0.005%p) 등은 변화폭이 약했다.

9개국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줄어들었다.

중국이 2.174%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중국이 지난 8월 11일 위안화 가치를 갑자기 절하한 것을 계기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브라질(-0.934%p), 인도네시아(-0.284%p), 터키(-0.116%p) 등 통화 가치가 급락한 국가들은 대체로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자금 유출이 두드러지지 않아 투자매력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IIF의 엠레 티프틱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한국의 순유출액은 28억 달러에 그쳤지만 중국(100억 달러 순유출)이나 다른 신흥국과 비교할 때 유출 강도는 세지 않았다"며 "신흥국 금융시장의 동요 속에 한국 자산은 비교적 잘 헤쳐나간 편"이라고 설명했다.

설태현 동부증권 연구원은 "올해 여름 세계 주식시장의 동반 하락 이후 국가별 매력 차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반대로 이익 모멘텀 상향 등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현재 투자자들의 신흥국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채권의 편입 비중은 9.2%까지 올라갔다. 200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평균 편입 비중인 8.6%보다 0.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달 한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오른 것도 한몫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S&P가 한국에 신용등급 AA-를 부여한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 8월6일(AA-) 이후 18년여 만에 처음이다.

그렇지만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라가르드 IMF총재와 이야기 나누는 최경환 MF/WB 연차총회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0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금융회사 '허위·과장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불시점검시스템 가동
'누구나·무차별·즉시' 등
현혹 쉬운 표현 강력제재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가 지난 8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회사들의 TV나 지면광고 등에 자주 등장한 '누구나', '무차별' 등 소비자를 현혹하기 쉬운 표현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허위·과장 금융 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통해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없애고자 불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별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근거 법규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 금융회사가 광고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제시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는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장', '즉시', '확정'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역선택을 조장했는지 등을 감시받게 된다. 은행권에서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대부업 광고에서 '대출신청 후 1분이내 대출' 등 실제 대출 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 대출이 가능하다고 과장했는지 도 감시 대상이다.

또 금융협회의 허위·과장 광고 사전심의와 사후감시·시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의 상시감시·불시점검을 강화해 위반한 금융회사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금융업권별 광고특성을 감안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법규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 허용범위 내 최고수준의 제재를 하게 된다.

김영기 부원장보는 "이번 조치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가 줄고 금융사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부 무분별한 대출과 금융상품 구매 조장 광고로 인한 금융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만기 일시'서 '분할상환' 전환땐
LTV·DTI 안 따진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 상환형 기존 대출 상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가 그대로 인정된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다.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재약정, 대환대출 등을 하는 경우 선 LTV·DTI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대책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을 당장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했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LTV·DTI를 재산정하면 대출총액이 줄어들어 감소한 대출액만큼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든 금융소비자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위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처럼 제도를 변경하기로 색했다.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방식의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자 스스로 대출금액을 점차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LTV가 60%를 넘는 부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차기태 기자

현대경제硏, 내년 성장률, 2.8% 전망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2016년 한국경제 전망' 발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국내 경기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하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메르스에 따른 소비 위축과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2.3%에 그쳤다.

남은 하반기는 추경 등 재정효과, 민간소비의 소폭 개선, 건설투자 회복세 지속 등에 힘입어 상반기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지만 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민간소비는 하반기로 진입하면서 소폭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대(對)미국 수출 증가에도 대 중국 수출 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주요 신흥국 경기부진 여파로 마이너스(-)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태 기자

3분기 높아진 실적 기대감… 中 경제지표 '주목'

주간 증시전망

코스피 박스권 장세 예상
中 수출·수입 컨센서스
美 FRB 베이지북 발표
이벤트 눈여겨 살펴봐야

이번주(12~16일) 코스피는 높아진 실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1940~2020선에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어닝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을 지수 상승요인으로, 중국 경제지표 둔화 확대 가능성, 글로벌 제조업 둔화 우려 지속 등을 지수 하락요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주(5~8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2.53% 상승한 2019.53포인트로 장을 마쳐 2개월여 만에 2000선을 돌파했다. 주 초반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단 소식에 미국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주 중반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소식에 2000선을 탈환했다. 주 후반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를 필두로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계속되며 상승폭을 키웠다.

◆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 기대↑

이번주에는 ▲10월 중국 수출·수입 컨센서스(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베이지북(Beige Book) 발표(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15일) 등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10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 지표는 전월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달 중순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10월 중국의 수출 컨센서스는 -6%로 전월(-5.5%) 대비 소폭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 컨센서스 역시 전월(-13.8%)보다 부진한 -15.2%로 중국 제조업 PMI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연구원은 이어 "중국의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 역시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출, 수입 데이터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며 "다만 중국 지표가 부진할수록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4일에는 미국 FRB의 베이지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베이지북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발표하는 미국의 경제동향종합보고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난 9월 경제동향보고에 비해 이번에는 성장 지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제지표는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며 "10월 FOMC 이전까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이번주 예정된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에서는 현재 1.50% 수준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5일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며 "다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이 지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경기 및 물가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최근 산업생산 및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기존 2.8% 수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9월 소비자물가가 0.6% 상승에 그치는 등 물가 상승이 부진해 기존의 물가 전망치(0.9%) 역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주에도 원·달러 환율 반등에 3분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수출주의 수혜가 이어질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IT하드웨어, 자동차, 섬유, 유틸리티 및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수혜주 등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천했다. KDB대우증권도 IT, 자동차, 화학업종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실적 호조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 실적은 낮아진 기대치를 대체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FOMC가 예정된 월말까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학업 지원'

노트북 등 보조기구 전달

#김영수(가명, 19세)씨는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다. 그런 그는 색깔만 겨우 구분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아 점자를 활용해 학습을 해야 하지만, 한글점자를 일본점자로 변환하는 보조기구는 턱없이 비싸 걱정이다. 김씨가 앓고 있는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은 주로 피부와 관절의 결합조직에 이상이 발생하는 선천성 질병으로 1만명 중 한명 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김씨에게 점자셀을 이용해 파일관리, 문서작업, 인터넷, 이메일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한소네U2'를 지원, 그의 꿈을 응원했다.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8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 학생들을 위한 학습용 보조기기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재단은 이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학교에 다니기 힘든 이들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지원하고, 손으로 컴퓨터를 다루기 힘든 이들에게 인테그라 마우스를 지원하는 등 보조기구 61개를 지원했다.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몸은 불편하지만 꿈과 학습에 대한 열망이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297명에게 학습용보조기구 지원을 해오고 있다.

유석쟁 전무는 "치료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재단은 앞으로도 학습용 보조기기를 지원, 학생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뒷줄 좌측부터) 배종훈 사업담당, 강용원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센터장, 박춘선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이혜영 파트장과 학생들이 8일 학습용 보조기구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KB국민은행, KB스타즈 어린이 스포츠 캠프 개최 KB국민은행 여자프로농구단 KB스타즈는 유소년층 농구 저변 확대를 위한 재능기부 행사인 '2015 KB스타즈 어린이 스포츠 캠프'를 지난 9일부터 2박3일간 KB국민은행 천안연수원에서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KB스타즈 농구단, FC안양 축구단 등 프로선수와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국채발행 잔액, 내년 첫 600조원 돌파

올해보다 50조원 증가
국고채 만기 적극 관리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 잔액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다.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채발행 잔액은 606조4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말 잔액 전망치(556조2000억원)보다 50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채발행 잔액은 2017년 655조9000억원, 2018년 697조4000억원으로 더 늘어 700조원에 근접한다. 이어 2019년에는 729조4000억원으로 7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채는 국고채와 국민주택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으로 구성된다.

국채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6년 536조7000억원, 2017년 581조1000억원, 2018년 617조6000억원, 2019년 646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량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됨에 따라 국고채의 만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고채의 단기물(만기 3년, 5년) 비중이 과거보다 줄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국고채의 약 48%가 2015~2019년에 만기가 도래한다.

정부는 월별 균등 발행, 조기 상환 및 신규 지표물과의 교환 등을 통해 만기를 분산시키는 등 국고채 만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규모 확대와 재정역할 강화로 국채 발행량 증가가 불가피한다는 입장이지만 국채가 미래세대의 채무인 만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지만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저출산·고령화, 통일, 공기업 부채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을 안고 있어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기태 기자



FashionN
9월 24일 목요일 밤 9시 첫방송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view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동탄·김포 등 노른자위 16곳 1만가구 분양

주간분양캘린더

지난주 공급 물량比 43% 늘어
신동탄파크자이 982가구 '최다'
15개 사업장서 견본주택 오픈도


10월 5~9일 대비 공급 물량이 43% 증가하면서 견본주택이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셋째 주(12~16일)에는 전국 16곳에서 1만770가구가 공급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만770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만163가구로 전주(5~9일) 공급된 5744가구보다 43.4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8곳 4843가구, 지방 8곳 5320가구 규모다. 전국 15개 사업장에서 모델하우스도 열린다.

GS건설은 경기 화성시 능동 624-4번지 일대에 '신동탄파크자이'를 분양한다. 지하3층~지상 21층, 11개동, 전용 76~100㎡ 982가구 규모다. 경부선 서동탄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삼성전자 나노시티 등이 위치한 배후주거단지로 인근에 병점초·중·고, 송화초등학교, 푸른중학교, 인화고등학교 등이 자리잡고 있다. 롯데시네마와 메타폴리스몰, CGV 등도 가까이 있다. 청약일정은 16일 1순위, 19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는 23일 발표된다. 계약은 28~30일 진행되며 입주는 2018년 1월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한강신도시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5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0층, 6개동, 전용면적 96~104㎡ 480가구로 구성된다. 2018년 김포도시철도 구래역이 개통 예정인 역세권 단지다. 신양초등학교와 호수초등학교, 한가람초·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교육 여건이 좋다.

또한 호수공원이 인접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내부에는 실내 골프연습장과 휘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센터도 조성될 계획이다. 청약일정은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는 10월21일 발표된다. 계약은 26~28일 진행되며 입주는 2018년 1월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해운대엘시티더샵'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85층, 2개동, 전용 144~244㎡ 882가구 규모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이 가깝다.

단지는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텔, 상업시설 등 3개 타워로 구성된 주상복합 단지다. 해운대초등학교와 동백중학교 등이 교육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해운대 백사장과 인접한 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을 확보했다. 청약일정은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는 22일 발표된다. 계약은 28~30일 진행되며 입주는 2019년 11월 예정이다.

이번주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10곳이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신도시아이파크' 전용 84㎡A는 60가구가 일반공급됐다. 1순위에서 308가구가 접수해 청약이 마감됐다. 이 단지는 1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 외 경기 안양시 안양동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경북 문경시 점촌동 '문경리더스로젠' 등에서도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당첨자 계약은 6곳에서 이뤄진다. 경남 창원시 용호동 '용지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4㎡는 62가구가 일반공급됐다. 1순위 당해지역 2만9708가구가 접수해 479.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13일부터 계약이 실시된다. 이 외 경기 평택시 용이동 'e편한세상평택용이(신흥지구 1 B/L)', 경북 경주시 진현동 '경주두산위브' 등에서 계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전국 15개 사업장에서 열린다.

반도건설은 16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B-6블록에서 분양하는 '다산신도시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상 30층, 11개 동, 전용 82~84㎡, 1085가구 규모다. 2022년 개통 예정인 8호선 연장선 다산역(가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워 교육여건이 양호하다.

금강주택도 16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46블록 일대에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4차' 분양을 시작하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모델하우스는 화성시 능동 471-3번지에 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18개동, 전용 74~84㎡, 1195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상업지구와 체육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동탄역 인근 롯데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집값 올라도 소비심리 '위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분석

"주택규제완화, 가계부실 초래 소비증진 위해 소득증대 중점"

집값이 올라도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 김영식 교수팀이 2008~2014년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13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1% 늘어날 때 소비는 0.141% 증가한 반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0.0649% 느는 데 그쳤다.

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DTI가 25% 미만인 대출자는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0.083% 늘어난 반면 25~50%인 대출자는 0.0416% 증가하는 수준이었다. 50~75%인 대출자는 0.0011% 느는 데 그쳤고 75% 이상인 대출자는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오히려 소비를 줄였다.

대출자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집값 상승에 따라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지갑을 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주택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늘렸다.

다만 결혼적령기(31~35세)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를 오히려 줄였다. 자녀 출산 등을 이유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저축을 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 집값 동향을 보면 5대 광역시의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수도권 지역의 주택은 하락했다. 부산은 2008년 8월 대비 작년 8월 40.8%, 대구는 36% 올랐다. 인천을 제외한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16.5% 떨어졌다.

김 교수는 "LTV와 DTI의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한계소비성향(새로 늘어난 소득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주택가격보다는 소득 증대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증진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LTV·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의 득과 실을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대림산업, 印尼서 2693억 수력발전소 공사 수주

어퍼 치소칸 공사 계약 체결
인도네시아 최초 양수발전소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수팡캇 이완 산토소 지역본부장(왼쪽 네 번째부터),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이기용 상무, 부디 하르토 위카 부사장, 마라스 아스탈디 자카르타 지사장 등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대표 김동수)은 최근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와 자카르타 본사에서 2693억원 규모의 어퍼 치소칸 수력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까리안 다목적댐 건설 공사에 이은 두번째 수주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급증하는 인도네시아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세계은행의 차관을 지원받아 실시된다.

어퍼 치소칸 수력발전소는 높이 75.5m의 상부댐과 98m의 하부댐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최초의 양수발전소다. 심야 잉여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저수지로 올리고 전력 사용이 활발할 때 그 물을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이다.

발전 용량은 1040MW이며 현장은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126km 떨어진 치소칸 강의 지류에 있다. 공사기간은 약 50개월이다. 대림산업은 이탈리아 건설회사 '아스탈디'와 인도네시아 국영건설회사 위카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대림산업 지분은 1077억원이다.

한편 대림산업은 올해 동남아시아에서만 5건, 약 1조6000억원에 이르는 토목공사를 수주했다. /박상길 기자

LH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매각 5252억 27~28일 공개입찰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구)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를 27~28일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는 10만707㎡ 규모로 공동주택부지와 복합개발부지, 임대·기반시설부지 등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부지는 2만8352㎡, 복합개발부지는 4만5887㎡다.

복합개발부지의 경우 연면적 20% 이상을 회의장과 전시장, 공연장, 백화점, 일반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의 전략유치시설로 지으면 나머지는 주거·기타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매각 예정금액은 5252억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18개월 거치를 부여하는 5년 무이자 분할이며, 일시불 선납 시 최대 8.78%의 할인효과를 볼 수 있다.

LH는 토지 사용이 2017년 3월부터 가능한 점을 고려해 18개월 거치, 5년 무이자 분할 납부 조건을 제시했다. LH와 구로구는 최근 협약을 맺고 교정시설의 연내 철거와 개발사업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공원·도로·공공시설을 확충, 신규 주택 보급과 주거·상업을 결합한 복합단지로 바뀌게 된다.

진로의 과일 맛 저도주 동남아 입맛 사로잡다

르포 하이트진로, 태국공장·대형마트 가보니

현지 최대 맥주기업 분럿그룹의 지원사격
亞 경제공동체 출범, 주류시장 새 성장기회

7일 오후 방문한 태국 유일 창고형 할인매장인 매크로. 식품관 주류코너에 들어서자 마자 하이트진로의 '진로24, 참이슬, 자몽에이슬' 등이 눈에 들어왔다.

매장에서는 태국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이 한창이었다. 매크로에서 만난 태국인 여성 푸이(PUII)씨는 "한국 소주는 맛이 좋고 마시기 쉬워 자주 구매한다"면서 "특히 가격도 저렴하고 숙취가 없어 좋다"고 말했다.

코스트코와 흡사한 이곳은 대다수의 태국 대형 마트가 오전 9~10시 사이에 문을 여는 것과는 달리 오전 6시부터 문을 연다.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하며 식품부터 생활용품 등을 판매해 소매업을 하는 상인과 일반손님들이 두루 찾는 곳으로 전 세계의 각종 식음료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최근 이곳에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주류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이트진로 진로24는 태국 증류주시장 내 현재 매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방콕시내 핫 플레이스인 RCA(Royal City Avenue)의 한 주점인 딱수라 RCA에서 만난 빠콘(Pakorn·방콕 거주 남성)은 "최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JRGG(JinRo Girl Group)라는 여성그룹이 데뷔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진로라는 이름의 소주를 보니 관심이 가서 마셔보고 싶어 주문하게 됐다. 칵테일이 색깔도 예쁘고 맛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인 8일 오전. 분럿사의 레오 맥주와 음료, 생수를 생산하는 빠툼타니 공장을 방문해 맥주 제조 공정과 생산 라인을 둘러봤다.

분럿그룹은 현재 태국 맥주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싱하(SINGHA) 맥주가 이 회사 제품이다.

분럿사는 태국 내 8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0억 리터(1억C/S) 맥주, 5억 리터의 음료, 3억 리터의 식수를 생산하고 있다. 이중 빠툼타니 공장은 맥주를 생산하는 3개의 공장(Khon kaen, Pathumthani, Shingha) 중 2번째 규모다. 공장 제품은 연간 3억 리터의 맥주, 9000만 리터의 음료, 1억 2000만 리터의 식수를 제조·공급하고 있다.



매크로 매장에서 하이트진로 자몽에이슬 제품 홍보를 하고 있다.


현지인들로 구성된 4인조 진로걸그룹.(JRGG)


분럿 빠툼타니 공장 전경.

공장 입구로 들어서니 맥주 제조의 핵심 재료인 몰트와 홉 등을 첨가하는 시설과 완성된 맥주를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맥주는 쉴 새 없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공장 한 켠에는 완성된 맥주가 차곡차곡 쌓였다.

이 공장에서는 몰트의 경우 호주, 홉과 이스트는 독일에서 들여온다. 몰트를 밀가루에서 설탕, 이스트는 설탕 성분을 알코올 성분으로 바꾸는 공정을 진행한다.

물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것이 특징이다. 지하수를 끌어와 바로 쓰지 않고 초미세여과(UF) 과정을 실시한 뒤 저장소에 뒀다가 역삼투(reverse osmosis) 한번 더 거친다.

맥주의 균을 잡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저온살균법(파스퇴라이징)이라는 과정도 진행된다. 저온살균법이란 맥주를 섭씨 60도까지 가열했다가 다시 30도가량으로 식히는 과정을 거치며 박테리아 균을 완전히 없앤다.

이외에 맥주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연구 시설도 가동한다. 연구소에서는 물 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 재료 등을 분석한다. 하루 분석량은 3084개에 달한다. 맥주는 병 기준 하루 4만4040개, 캔은 1시간에 6만~7만개까지 제조된다.

하이트진로는 일본과 중국에 이어 아시아 3대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한 동남아 주류시장 공략에 나서며 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강현순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장은 "최근 한국 제품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주류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음용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통해 한국 술의 우수성을 알려 동남아 주류시장에서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태국은 6억명 거대시장 거점… 2년내 2000만 달러 수출 목표

매크로 입점 등 유통망 강화
파트너십 통한 인지도 확대
'진로24' 5년 내 시장 1위 목표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사진)가 현지화 전략을 통해 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류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동남아시아는 하이트진로와 인연이 깊다. 하이트진로는 1968년 베트남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에 첫 수출했다. 현재 동남아시아 기준으로 태국을 비롯해 베트남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7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동남아 수출은 2011년 이후 26.9%, 41.3%, 30.3% 등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 발전 속도에 따라 향후 더욱 성장이 기대된다. 올해 말 AEC(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으로 GDP 규모로 세계 7위, 인구로는 6억명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태국 시장 전체 매출은 354% 증가했으며 현지 주력 제품인 '진로24'의 매출은 같은 기간 793% 늘었다.

하이트진로는 태국시장에서 올해 930만 달러, 2017년 2000만 달러의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 기업인 분럿그룹과의 업무 제휴, 대리점 현지화, 신제품 출시, 걸그룹 마케팅 등을 펼치고 있다.

진로는 2011년 태국의 최대 주류기업인 분럿 그룹과 소주 수출·유통계약을 맺은 후 주요 지역인 RCA와 수쿰윗 등에 빌보드 광고 판 설치, 주요업소 배너·포스터·판촉물 제작, 시음회 등을 하고 있다.

1933년 설립된 분럿그룹은 태국 최초로 왕실 허가를 받은 유일한 맥주 싱하를 생산하는 종합 식음료회사다. 핵심사업인 주류사업을 비롯해 음료와 외식, 유통 등 50여 개 사업을 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자국 내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분럿사의 주력 상품은 진로24다. 현재 태국 증류주 시장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진로를 유통하는 분럿사는 5년 내 진로24를 1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출시한 자몽에이슬 주문은 2배 가량 늘어난 상태이며 11월 알코올 도수 16도의 과일 소주인 진로 그레이프푸르츠 등도 출시를 준비 중이다.

진로는 대리점 현지화를 통한 유통 채널 강화도 힘쓰고 있다.

태국 현지 유일한 창고형 대형 할인 마트인 매크로를 비롯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탑스와 맥스벨류,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패밀리마트, 터미널21 등의 쇼핑몰과 백화점 식품코너 등에 입점했다. 매크로는 현재 74개의 점포(방콕 14개, 북부지역 15개, 남부지역 17개 등)를 운영 중이다.

하이트진로의 상반기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실적은 55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4% 늘었다.

품목별로는 맥주가 235.2%, 소주가 25.7% 늘었다. 나라별로는 필리핀이 195만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다. 지난해부터 맥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출계약을 맺은 싱가포르는 534%의 수출 실적을 기록 중이다.

하이트진로는 이같은 실적에 힘입어 지난 9월 달콤하면서도 독한 술을 좋아하는 현지인의 입맛을 고려해 자몽에이슬을 수출했다. 10월부터 현지 음식점과 주점에서 판매 중이다.

이외에도 트렌드에 민감한 현지인을 고려한 대중문화 마케팅을 하고 있다. 최근 현지인들로만 구성된 4인조 걸그룹인 JRGG(진로걸그룹)를 데뷔시켰다. 이들은 데뷔 일주일만에 페이스북 팔로어 1만명을 돌파했다.

전문 외주업체를 활용한 SNS 마케팅, 텅러와 에까마이 등 주요 업소 인테리어 지원을 통한 팝업 스토어도 진행 중이다. 인기 프로스포츠 구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확대도 추진한다.

김인규 대표는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동남아 수출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동남아 시장은 일본과 중국에 이은 아시아지역 3대 수출시장으로 성장 중이다. 앞으로도 현지화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수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아로마향으로 감기예방하세요 11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관 센티멘탈 매장에서 어린이와 여성이 감기 예방에 효능이 좋은 아로마 향을 맡아보고 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는 '센티멘탈 아로마'를 3만5000원에, '스톤글로우 아로마'를 3만9000원에, '프라이스 캔들'을 9000원에 판매한다. /아이파크몰 제공

'소비 허리' 40대 지갑 닫혀

침체 장기화·인구구조 변화 다른연령 비해 40대 소비 ↓

지난해 유통업계 영업현황 분석 결과 '소매시장의 허리'로 불리는 40대 고객의 소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소했다. 또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은 줄어들고 슈퍼마켓·편의점을 찾는 고객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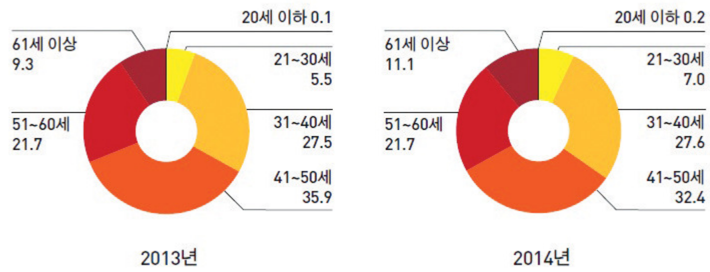
11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이갑수)가 최근 발간한 '2015 유통업체연감'에 따르면 대형마트 전체 매출 중 41~50세 고객 층이 차지한 구매액 비중이 2013년 35.9%에서 지난해 32.4%로 3.5%p 감소했다.

40대의 소비 감소는 백화점과 슈퍼마켓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백화점의 경우 29.8%에서 28.2%로 1.7%p 감소했으며 슈퍼마켓은 36.8%에서 36.5%로 소폭 감소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각각 0.2%, 1.6% 역신장을 기록하고 슈퍼마켓 성장도 0.8%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40대의 실질 소비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형마트 연령대별 매출 구성비 단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제공

인구구조 변화로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 수도 감소했다.

지난해 대형마트 매장들의 일평균 구매객수는 4720명으로 2013년 4861명 대비 141명 감소했다. 대형마트의 고객 감소 추세는 소비침체와 함께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슈퍼마켓의 경우 하루평균 구매객수가 2013년 1009명에서 지난해 1082명으로 증가했다. 편의점 이용객수도 2013년 대비 5.1%증가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설도원 부회장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와 주택비 부담이 큰 40대 소비층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처분 소득과 자산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식품·일상용품 소비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전 연령대 중 소비 여력이 가장 크고 실제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가장 높은 40대가 소비를 줄인 것은 그 만큼 전체 소매경제가 위축됐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홍종학, 면세점 특허수수료 100배 인상 발의

6억→600억원으로 껑충 한번에 과도한 인상 지적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 8일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인상하고 송객수수료를 금지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난해 6억원 수준이었던 면세점의 특허수수료가 600억원으로 뛰게 된다. 또 지난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5486억원의 송객수수료는 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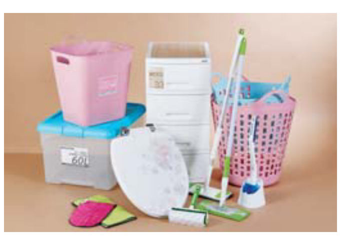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 넘게 뛰는 등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세점 사업이 이처럼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것은 시행규칙 상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에 기인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허수수료를 100배 증가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홍 의원은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경쟁력은 엄청난 리베이트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리베이트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재벌몰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롯데마트 '홈퍼니싱' 매출 날개 달았다



롯데마트(대표 김종인)의 홈퍼니싱(Home furnishing) 상품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홈퍼니싱은 가구, 인테리어소품, 벽지, 침구 등으로 집안을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롯데마트가 11일 발표한 올해 1~9월 매출을 보면 가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1%늘었으며 조명기구는 13.0%신장했다. 벽지와 카페트 매출은 각각 145.3%, 205.0% 증가했다.

롯데마트 측은 홈퍼니싱 매출 증가 원인을 1인 가구 증가가 전체 가구 수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이같은 추세에 맞춰 올해 말까지 홈퍼니싱 관련 상품 품목을 기존 3000여 개에서 4500여 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롯데百, 부산명물 '비엔씨' 팝업스토어 선봬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이달 18일까지 서울 소공동 본점에서 '비엔씨'(B&C)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비엔씨가 부산 지역 이외에 제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 본점 행사가 처음이다.

비엔씨의 대표상품은 페이스트리 빵에 통단팥과 팥앙금이 들어있는 파이만쥬, 치즈와 타피오카로 만든 치퐁듀, 감자샐러드가 들어간 사라다빵 등이다.

이들 제품은 부산지역 9개 점포에서 하루평균 1만~1만5000개 판매되는 인기 제품이다.

커피브랜드 '해시태그' 달고 인지도 껑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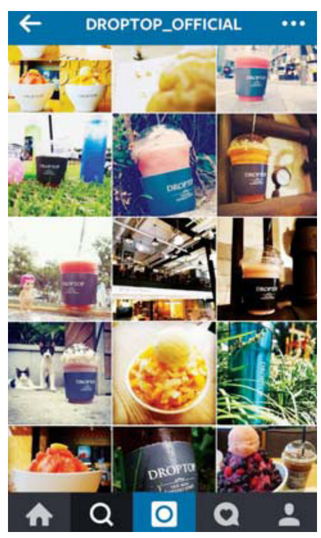
참여 유도로 소비자와 소통 모바일 메뉴판 역할 '톡톡'

커피전문점 업계가 해시태그(#)를 이용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시태그는 특정 단어에 '#'을 붙여 그 주제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연관된 게시물을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다.

커피 사진을 지칭하는 해시태그인 '#커피스타그램'을 검색하면 수없이 많은 검색결과가 나온다. 이는 인스타그램 유저 중 상당수가 커피를 마시고 카페를 방문하는 커피전문점의 주요 소비자임을 의미한다.

커피업계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브랜드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인스타그램 안에 밀집된 소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커피전문점 드롭탑은 지난해 가을부터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를 알리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드롭탑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게시물 수는 600여 개, 팔로워 수는 4000여 명에 이른다.



드롭탑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이미지.

드롭탑은 주요 메뉴를 다양한 소품과 함께 연출하거나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한 뒤 게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카페베네는 요거솜솜, 눈꽃빙수, 미니빙수 등 주요 제품의 인증샷을 찍고 해시태그를 붙여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벤트를 진행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진행한 '먹고싶다 요거솜솜' 이벤트를 통해 '#요거솜솜' 해시태그 콘텐츠가 1500여 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할리스커피 역시 해시태그와 함께 행사 메뉴의 인증사진을 찍어서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이 할리스의 주요 메뉴를 찍은 사진을 더욱 많이 게시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커피업계 마케팅 관계자는 "해시태그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제품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사진으로 소개할 수 있어 모바일 메뉴판 역할도 톡톡히 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G마켓, 자전거 끝장세일 18일까지 최대 67% 할인

G마켓(대표 변광윤)은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자전거 시즌오프 끝장세일'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제품들을 온라인몰 최저가 수준으로 선보이며 최대 67%까지 대폭 할인 판매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알톤 알루미늄알투스 9단 하이브리드'를 500대 한정 16만9000원에 판매한다. '휠라 21단자전거'는 250명 한정 9만9000원에, '오벨로 26인치 MTB'는 500명 한정 6만9900원에 선보인다.

또 카드사 5% 할인, G캐시 2만원 증정 등 추가혜택도 함께 마련될 계획이다.

전철타고 떠난 영종섬… 하늘 맞닿은 '비경'

공항철도 노선 인근 섬산행 명소
무의도 호룡곡산·장봉도 국사봉
교통 편리해 사계절 산행객 몰려

섬산행의 진수는 바다전망인 만큼 맑은날씨의 가을을 맞아 섬을 찾는 산행객들이 많다.

인천 무의도와 장봉도는 수도권의 대표적 섬산행 명소다. 특히 공항철도 역에서 가까운 교통편리성으로 인해 사계절 산행객들이 몰리고 있다.

◆ 무의도 호룡곡산

여의도 크기만한 무의도는 하나개와 실미 등 고운 모래를 가진 해수욕장 두 곳이 있어 섬 여행지로도 인기이다.

산행은 선착장 앞 당산을 거쳐 국사봉(230m)~호룡곡산(246m)~광명항을 잇는 종주 등산로가 섬산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총 산행 시간은 3~4시간 정도. 맑은 날에는 태안반도까지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바다 전망이 뛰어나다.

호룡곡산 정상에 오른뒤 광명항으로 하산해 무의도와 다리로 연결된 소무의도로 들어가 섬을 한바퀴 도는 30~40분 코스의 누리바다누리길을 돌아봐도 좋다.

또, 호룡곡산에서 하나개해욕장으로 하산하면 동해안 같은 해안절벽의 경관을 즐길수 있고 하나개해변에선 '천국의 계단' 등 드라마 촬영세트장을 구경할수 있다.



인천 무의도 호룡곡산 섬 전망. /공항철도 제공

◆ 장봉도 능선산행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가까운 장봉도는 길고 봉우리가 많은 산으로, 최고봉인 국사봉(해발 151m)을 중심으로 산행 끝지점인 가막머리 전망대까지 나지막한 산줄기가 8.5㎞에 걸쳐 길게 뻗어있다.

완만한 경사의 능선산행이어서 힘들지 않은데다 중간에 하산로가 많아 체력에 맞게 산행을 한뒤 버스를 이용해 선착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장봉도 산행은 크고작은 능선을 오르내리며 바다조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묘미. 특히 국사봉 정상에 서면 무의도 등 영종도 일대 섬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강화도 마니산과 인천대교, 송도신도시도 한눈에 들어온다.

옹암선착장 앞에서 산행을 시작해 상산봉~말문고개~국사봉~봉수대를 거쳐 가막머리 전망대까지 능선 종주에 4시간 남짓 걸리는데 선착장으로 되돌아갈때는 가막머리에서 새로 조성된 2.1㎞ 해안둘레길을 걷자.

둘레길을 따라 탁트인 바다전망을 즐기며 윤옥골로 간뒤 임도를 따라 0.7㎞ 떨어진 장봉4리로 가거나 건어장정류장까지 40여 분간 해안둘레길을 트레킹해도 된다. 선착장행 버스는 1시간 단위로 다니며 운임은 1000원으로 현금만 받는다.

/이예진 기자 green@metroseoul.co.kr

무의도·장봉도 교통정보

▲ 무의도 : 인천공항역→여객터미널3층→7번 버스정류장에서 2-1, 222번 →잠진도 선착장.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서해바다열차 이용해 용유임시역하차→도보 15분→잠진도선착장(서해바다열차 운행시간표는 1599-7788 또는 공항철도 홈페이지 참조). 배 운임은 대인기준 편도 1500원.

▲ 장봉도 :운서역 건너편 편의점 앞 정류소에서 201, 307번 → 삼목선착장. 장봉도까지 40여분 소요. 배 운임은 대인 편도기준 3000원.

서울메트로, 지하철 '화장실 꽃단장' 나서

동감·감동 현장 시민토론회
사당역 등 33곳서 공사 추진

사당역 등 서울메트로 33개 역사 화장실의 개선 공사가 추진된다.

11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정원(52·사진) 사장은 최근 2호선 선릉역 대합실에서 개최한 '동감(同感), 감동(感動) 현장 시민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 토론회에는 시민대표 60여명과 서울메트로 이정원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지하철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정원 사장은 사당역화장실이 비좁고 지저분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하철 건설 당시보다 현재 이용 인원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사당역을 포함한 33개 역사 화장실 개선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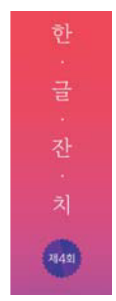
또 창동역 환승 구간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승 구간은 코레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시공사와 문제가 있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4호선 역사 대합실-승강장에는 2017년 8월까지 4대의 엘리베이터를 우선 설치해 불편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시민토론회는 시민들이 노후화된 지하철 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시설물 등에 대한 불편함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듣고 사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이예진 기자

그룹와이, 18일까지 홍대서 '한글잔치'

그룹와이(편석훈 대표)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 청계천 광장, 홍대 앞 등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그룹와이가 매년 한글날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한글잔치'는 그룹와이 갤러리뚱과 KT&G 상상마당(홍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 행사는 오는 18일까지다. 그룹와이는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2015 한글문화큰잔치'에도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일반인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에서 그룹와이는 행사장에서 하나의 한글 글꼴이 제작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작업자의 방'을 전시했다.



그룹와이는 서울특별시와 한겨레가 공동 주최하는 '2015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에 유일한 후원사로 참여, 유머엽서 부스를 운영했다. 이 공모전은 2013년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매년 청계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이대목동병원서 만나는 280일 생명의 신비

16일까지 태아 초음파 사진전

이대목동병원에서 태아의 탄생까지의 과정을 담은 사진전이 개최된다.

12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정혜원 과장)는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병원 2층 로비에서 '280일의 신비'를 주제로 제4회 태아 초음파 사진전을 오는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의 탄생에 대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엄마 배속에서 태동하며 280일 동안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가는 신비한 태아의 모습이 3D와 4D 초음파로 촬영된 다양한 사진이 전시돼 감동을 준다.

박미혜 산부인과 교수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태아의 탄생하기까지 감동적인 280일 간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인터넷신문協, 14일 동아시아뉴미디어포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창호 협회장)가 14일 동아시아뉴미디어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포럼에서는 '미디어 융·복합 시대, 뉴미디어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라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포럼에는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이남기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대표, 곽영길 아주경제 대표 등 3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인터넷언론과 동아시아 뉴미디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대표는 "이번 포럼이 동아시아 뉴미디어 간에 상호 교류협력의 첫 단추를 채우면서, 인터넷언론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촉구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뉴미디어 환경을 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미란 기자

star bag



베일 벗은 JYP 걸그룹

JYP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트와이스**가 오는 20일 정식 데뷔를 앞두고 멤버들의 단체 사진을 공개했다. 블랙아이드필승이 참여한 노래 'OOH-AHH하게(우아하게)'로 활동한다.



13년 만에 컴백

그룹 **클릭비**가 오는 21일 7인조 완전체로 컴백한다. 13년 만의 컴백이다. 앞서 지난 추석 특집 방송된 SBS '심폐소생송'에 출연, 녹슬지 않은 실력과 변함없는 외모로 화제를 모았다. 단독 콘서트도 준비 중이다.

가을 감성 담은 신곡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이 가을 감성을 담은 신곡 '밀리언조각'을 오는 15일 발표한다. 클래시컬하고 세련된 멜로디가 규현의 감미로운 보컬과 잘 어우러진 팝발라드 곡이다.

드라마어워즈 대상



배우 **김수현**이 지난 9일 열린 2015 코리아 드라마어워즈에서 KBS2 '프로듀사'로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SBS '별에서 온 그대'에 이어 2년 연속 대상 수상이다. '한류스타상' 까지 받아 2관왕에 올랐다.

팝페라 가수 변신



가수 **박기영**이 팝페라에 도전한다. 박기영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팝페라 크로스오버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중가수가 정식 크로스오버 앨범을 내는 것은 박기영이 최초다.

라디오의 매력, 함께 나누실래요?

DJ로 돌아온 가수

조정희



라디오는 오직 음악과 소리로 소통하는 매체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진솔한 이야기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청취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이는 라디오 DJ로 돌아온 가수 조정희의 즐거움이자 소망이기도 하다.

조정희는 1982년 제6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참새와 허수아비'로 대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여자 솔로 가수로는 최초였다. 정식 가수 데뷔 권유가 잇따랐다. 그러나 조정희는 가수 대신 전공인 미술을 선택했다. 추억의 노래만을 남겨 놓은 채 대중 앞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그런 조정희가 다시 대중 곁으로 돌아왔다. 지난달부터 EBS 라디오 '오후N음악, 조정희입니다'(이하 '오후N음악')의 DJ를 맡고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3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다. 조정희는 청취자 사연에 귀 기울이며 음악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있다.

지난 8일 가로수길 근처의 한 카페에서 조정희를 만났다. 그는 "라디오는 소리 하나로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내 몸에 잘 맞는 옷처럼 편안해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무언가 집중할 때는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 있는 듯 의지하게 되죠." 중·고등학교 시절 라디오를 들으며 자란 추억도 '오후N음악'의 진행을 맡는데 영향을 끼쳤다.

매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라디오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

> 대학가요제 대상 출신 스타
> 라디오 DJ로 새로운 인생
>
> 음악으로 소통·공감 나눠
> 오랜 친구처럼 다가가고파

다. 과거 음악 중심이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은 최근 들어 DJ와 게스트가 나누는 토크 위주의 방송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라디오의 추억이 있는 이들에게는 아쉬운 변화다. '오후N음악'이 여타 라디오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점은 바로 라디오만의 매력을 잘 느낄 수 있는 음악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다. 조정희가 애착을 갖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다.

"'오후N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음악 여행입니다. 가요와 팝이 중심이지만 샹송·칸초네·라틴음악·영화음악·재즈·크로스오버·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죠. 음악과 함께 청취자들의 따뜻한 사연으로 소통하는 음악 방송이라는 점, 그것이 '오후N음악'이 지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조정희는 라디오의 매력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직접 아이디어도 냈다. 화요일에는 '그 사람 그 노래'가 방송된다. 각 분야의 전문가 한 명을 게스트로 초대해 그들이 직접 선곡한 음악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다. 토요일에는 클래식 음악을 보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코너가 준비돼 있다. '토요일엔 토크가 있는 클래식'이다. 유명 성악가가 직접 출연해 라이브로 공연을 선보인다. 테너 배재현·바리톤 고성현·바리톤 조규희 등이 출연했으며 소프라노 박정원·서활란도 출연 예정이다.

33년 전 대학가요제의 스타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조정희는 이제 라디오 DJ로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아이들의 엄마이자 한 남편의 아내이며 집안의 맏며느리이기도 한 그는 삶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라디오에 녹여내며 많은 청취자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대중음악을 한 사람으로서 숨겨져 있고 잊고 있는 보석 같은 가요를 찾아 들려주고 싶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청취자들과 소통하고 싶고요. 편안한 찻집에서 오랜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듯, 많은 분과 라디오로 만나고 싶습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마션' '인턴' 할리우드 영화 다시 강세

'한글날' 연휴 관객몰이
'마션' 개봉동시 정상에



마션



인턴

할리우드 영화가 다시 강세다. 한글날 연휴 동안 '마션'과 '인턴'이 극장가 흥행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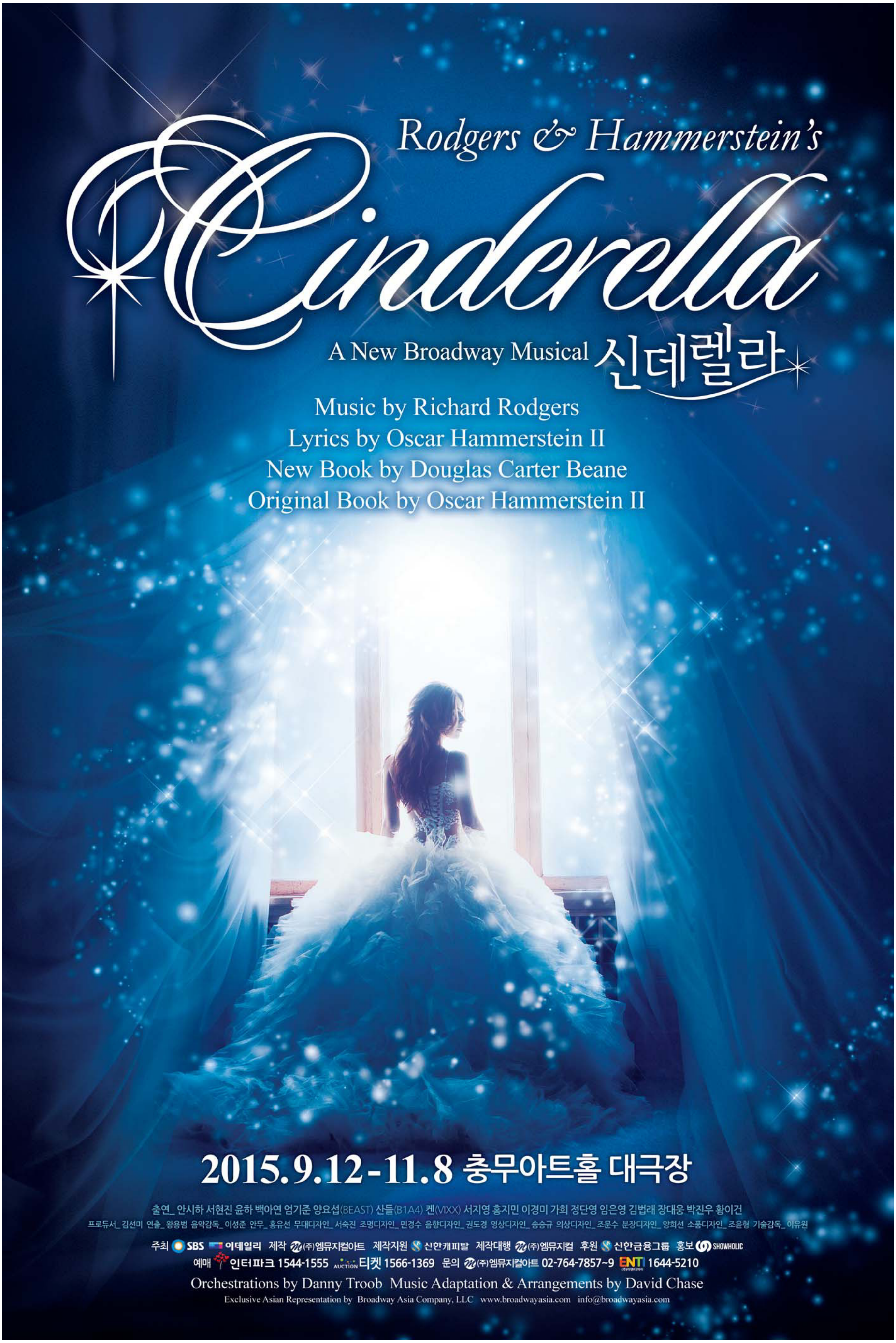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마션'은 지난 8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라 한글날과 주말까지 1위 자리를 지켰다. 9일에는 54만649명을, 10일에는 53만9730만명을 모았다. 개봉 첫 주말에 누적 관객수 136만1399명을 돌파했다.

'인턴'도 흥행을 이어갔다. 8일 3위로 하락했던 '인턴'은 9일 2위로 순위가 다시 상승했다. 9일에는 17만2438만명을, 10일에는 17만129명을 모았다. 누적 관객수도 개봉 11일 만에 200만을 돌파했다. 10일까지 212만6173명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영화는 지난 여름 '암살'을 시작으로 '베테랑' '사도'까지 꾸준히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가을과 함께 시작된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에 그 기세가 수그러들었다. 8일 개봉한 신작 '성난 변호사'도 첫 날 2위로 등장했으나 9일부터 3위에 머물렀다. 9일에는 16만938명을, 10일에는 15만6794명을 모았다. 누적 관객수는 42만881명이다.

한편 '사도'는 6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일까지의 누적 관객수는 594만3236명이다. '탐정: 더 비기닝'은 누적 관객수 234만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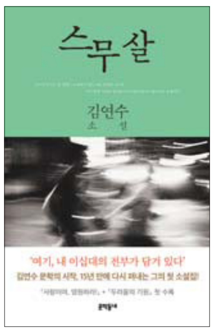
/장병호 기자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새로 나온 책

스무 살
문학동네 / 김연수 지음



소설가 김연수의 첫 소설집 '스무 살'이 15년 만에 개정판으로 새로 출간됐다. 김연수는 1994년 등단 이후 21년 동안 8권의 장편소설과 5권의 소설집을 펴내며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개정판은 초판의 오류를 바로잡고 차례를 새롭게 정했다. 문예지를 통해 공개됐으나 단행본에 묶인 적 없는 단편 '사랑이여, 영원하라!'와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미발표작 '두려움의 기원'도 수록했다.

표제작인 '스무 살'은 "스무 살이 지나가고 나면 스물한 살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스무 살 이후가 온다"는 뼈아픈 비유로 시작하는 작품이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지 모른 채 운동권에서는 약간 비껴 서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내 온 스무 살을 서정적인 필치로 담고 있다. 이밖에도 김연수의 소설세계에서 '청춘'에 해당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

쥬라기 공원의 과학
처음북스 / 베스 샤피로 지음·이혜리 옮김



영화 '쥬라기 공원'처럼 멸종 생물을 부활시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생물학자인 베스 샤피로는 매머드를 복원하려는 계획을 추적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살펴본다. 멸종 생물 복원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연애의 이면
은행나무 / 이영훈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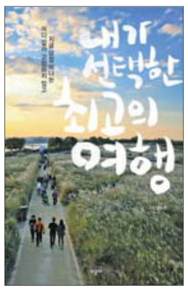
강렬한 여운과 신선한 박력이 돋보이는 소설을 선보여온 작가 이영훈의 중편 소설이다. 삶의 기로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온 주인공이 불가해한 사랑을 만나 비로소 스스로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렸다.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다.

엄마 vs. 엄마
웅진리빙하우스 / 정우열 지음



정신과의사이자 워킹맘인 아내를 대신해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 저자가 많은 엄마들을 만나면서 느낀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아이에 초점을 맞춘 자녀교육서가 아닌, '엄마'라는 주체에 큰 방점을 찍은 심리치유서다. 세상 모든 엄마에 대한 위로를 담았다.

내가 선택한 최고의 여행
시공사 / 임운석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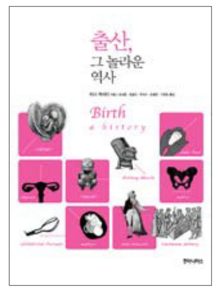
바쁜 현대인을 위해 국내 여행 고수인 저자가 추천하는 여행지를 담았다. 봄꽃나들이, 가을 단풍, 드라이브 코스, 차 없이 떠나는 여행 등 다양한 주제별로 우리나라에서 꼭 가봐야 할 여행지 105곳을 정리했다. 시간 낭비 없이 여행지를 선택하고 쉽게 떠날 수 있는 책이다.

빛의 산
펜타그램 / 겐유 소큐 지음·박승애 옮김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을 온몸으로 겪은 후쿠시마의 승려 작가 겐유 쇼큐의 작품집이다.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의 이야기를 담은 6편의 작품을 수록했다. 한국 독자에게는 처음 소개되는 '후쿠시마 이후의 문학'으로 재난 이후 후쿠시마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실을 담았다.

출산, 그 놀라운 역사
후마니타스 / 티나 캐시디 지음·최세문 외 옮김



제목 그대로 인류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다. 직립보행과 함께 혼자 출산할 수 없는 영장류가 된 인류가 오랜 시간 겪어온 출산에 얽힌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긴 세월 동안 쌓여온 완벽한 출산에 대한 인류의 고민도 함께 담았다.

TV 하이라이트

드라마 주인공 되기까지

◆ SBS '힐링캠프-500인'

오후 11시15분



드라마 '용팔이'의 주인공 배우 주원이 500인의 일반인 MC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주원은 배우가 되려고 했던 과거에 대해 고백한다. 꿈 많았던 대학교 시절부터 스무 살에 처음 뮤지컬 주인공에 발탁돼 데뷔하게 된 과정을 털어놓는다. MC들의 부탁에 가수 못지 않은 노래 실력을 뽐내는 등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매력을 방출한다. /정리=하희철기자 hhc@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10분

술만 마시면 무모해지고 센 척하는 아빠, 심지어 눈으로 맥주병을 따보겠다고 도전하다가 결국 피까지 봤다는 아빠 때문에 고민인 여자가 스튜디오를 찾는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30분

건강미 넘치는 걸그룹 씨스타 보라의 냉장고가 공개된다. 이연복과 미카엘은 등갈비를, 최현석과 샘킴은 한식재료를 주제로 한 요리 대결을 펼친다.



◆ JTBC '비정상회담'

오후 11시

SNS 시인 하상욱과 함께 '창의력 강요하는 사회'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G11은 각자 과거 창의력을 발휘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담을 털어놓는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일(월)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channel J
05:00 KBS 뉴스 05:10 KBS 걸작 다큐멘터리 (재)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세계 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11:30 행복한 지도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발칙하게 고고 (재)	05:00 MBC 뉴스 05:10 MBC네트워크특선 사람, 산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00 2015 메이저리그 추신수 출전경기 AL 디비전시리즈 3차전 텍사스:토론토	05:00 SBS 5 뉴스 0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신인류 식품관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히든싱어 4 (재) 10:50 디데이 (재)	05:50 나는 자연인이다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현장르포 특종세상 (재) 11: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5:20 코미디 빅리그 (재) 06:3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8:10 응답하라 1994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05:00 진짜 사랑 시즌1 (재) 06:00 히가시노 게이고 미스터리즈 06:55 식신로드 (재) 07:55 마츠리 시리즈 (재) 08:50 영상앨범 산 (재) 09:30 여행의 발견 10:05 Wonderful 일본 여행 (재) 11:00 THE 세계유산 11:30 일본낚시여행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2015 전국 대학 농구 15:55 튼튼생활체조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다큐멘터리 3일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생정보 스페셜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재)	12:00 MBC 뉴스 12:4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3:40 뚝?뚝! 키즈스쿨 스페셜 14:30 와일드 패밀리(재) 15:00 MBC 뉴스 15: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15:40 문화사색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육룡이 나르샤 (재)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재) 16:00 꾸러기탐구생활 스페셜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12:05 디데이 (재) 13:2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2:20 두번째 스무살 (재) 15:00 문제적 남자 (재) 16:30 코미디 빅리그 (재) 17:5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2:00 괴기 연애작전 13:05 루즈벨트 게임 14:00 히가시노 게이고 미스터리즈 (재) 15:00 해피라이프 (재) 16:00 와카코와 술 17:00 영상앨범 산 (재) 17:35 여행의 발견 (재)
18:00 6시 내고향 18:50 4000회 특집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우리말 겨루기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3:00 KBS 뉴스라인 23:40 국제공동제작 아시안 피치 24:35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후 시즌9	18:00 2TV 저녁 생생정보 1 18:50 올림픽 축구 대표팀 친선경기 20:55 위기탈출 넘버원 22:00 발칙하게 고고 23: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려한 유혹 23:10 특집다큐 올라 아르헨티나! 한글, 어디까지 가있니 24:10 MBC 뉴스 24 24: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24:45 스포츠 특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2:00 육룡이 나르샤 23:15 힐링캠프 500인 24:35 나이트라인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냉장고를 부탁해 22:50 비정상회담 24:20 수상한 미용실 살롱 드림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21:50 휴먼다큐 사노라면 23:00 엄지의 제왕 24:40 엄지의 제왕 (재)	19:40 리틀빅 히어로 20:40 명단공개 21:40 집밥 백선생 (재) 23:00 두번째 스무살 (재) 24:20 두번째 스무살 (재)	18:10 THE 세계유산 (재) 18:30 일본낚시여행 (재) 19:05 루즈벨트 게임 (재) 20:00 진짜 사랑 시즌1 21:00 여성 룰 22:00 신참자 (재) 23:15 형사 110킬로 시즌1 24:10 루즈벨트 게임 (재)

"통한의 18번홀"… 배도 울고 송도도 울었다

<배상문>

2015 프레지던츠컵

마지막 18번홀 뒤땅치기 美, 6회 연속 우승 차지

2015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미국이 인터내셔널 팀의 맹추격을 가까스로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다.

한국·남아프리카공화국·호주 등 다국적 선수로 구성된 인터내셔널 팀은 11일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파72·738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레이 12경기에서 마지막 조인 배상문(29)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5승2무5패로 미국에 맞섰다. 그러나 승점 1차를 뒤집지 못했다. 결국 인터내셔널팀은 최종 승점 15.5-14.5로 우승컵을 미국에 졌다.

미국은 2005년 대회부터 6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인터내셔널 팀과의 역대 전적에서도 9승1무1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확인했다.

대회 사흘째까지 승점 8.5-9.5로 추격한 인터내셔널 팀은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역전을 노렸다. 하지만 미국의 탄탄한 전력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배상문의 실수가 아쉬웠다.

인터내셔널 팀은 경기 초반 미국과 대등한 승부를 보였다. 인터내셔널 팀의 맹추격 속에서 동점도 여러 차례 나왔다. 특히 11경기에서는 마크 레시먼(호주)이 미국팀의 에이스 조던 스피스를 1홀차로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어 브랜던 그레이스(남아공)가 맷 쿠처를 1홀차로 물리치면서 승부는 14.5-14.5 원점이 됐다.



11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열린 2015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마지막날 싱글 경기. 인터내셔널 팀의 배상문이 18번홀에서 결정적인 세 번째 샷 실수를 한 뒤 아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갤러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조로 나선 한국의 배상문에 쏠렸다. 16번홀까지 1홀차로 빌하스에게 뒤진 채 끌려가던 배상문은 17번홀(파3)에서 티샷을 그린 앞 벙커에 빠뜨려 그대로 주저앉는 듯했다. 그러나 그림 같은 벙커샷으로 두 번째 샷을 홀 바로 옆에 붙여 컨시드를 받아내 18번홀(파5)로 승부를 끌고 갔다.

배상문은 18번홀에서 무승부를 노렸다. 그러나 세 번째 샷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홀에 바짝 붙이기 위해 여러 차례 연습 스윙을 한 뒤 신중하게 샷을 날렸지만 클럽이 뒤땅을 치고 만 것이다. 얼마 가지 못한 볼은 다시 급경사를 타고 내려왔다. 안타까운 실수에 배상문은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고 말았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슈틸리케호, 다음 상대는 '자메이카'

대표팀 내일 평가전 승리 기세 이을 각오

월드컵 지역예선 쿠웨이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태극전사의 다음 상대는 북중미 강호 자메이카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1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자메이카와 평가전을 치른다.

자메이카와의 A매치는 17년 5개월 만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5월 서울에서 치른 두 차례 친선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쿠웨이트시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한국 대 쿠웨이트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둔 한국 축구 대표팀이 기뻐하고 있다. 대표팀은 내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자메이카와의 평가전에 나선다. /연합뉴스

자메이카는 10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57위로 한국보다 네 계단 낮다. 그러나 지난 9월에는 52위로 한국보다 다섯 계단 높았다. 특히 지난 7월에 열린 미국·캐나다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골드컵 준결승에서 미국을 꺾으며 멕시코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월드컵 본선에는 1998년 프랑스 대회에 한 번 출전했다.

태극전사들은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4전 전승의 상승세를 자메이카전에서도 이어간다는 각오다. 슈틸리케호는 지난 8일(현지시간) 쿠웨이트시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쿠웨이트와 원정 경기에서 구자철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해 G조에서 단독 선두(4전 전승)로 최종 예선 진출을 눈앞에 뒀다. /장병호 기자

세계군인체육대회, 韓 종합 4위로 유종의 미

역대 최다 메달·최고 순위

전 세계 117개국이 출전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흘 동안의 열전을 마치고 폐막했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11일 남녀 마라톤 경기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다 메달-역대 최고 순위'의 쾌거를 달성했다. 금메달 19개·은메달 15개·동메달 25개를 합쳐 총 59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한국 선수단이 참가한 역대 세계군인체육대회 사상 최고의 성적이다. 종합 순위도 기존 최고 순위보다 한 계단 올라간 4위를 기록했다.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11일 열린 마라톤 경기를 끝으로 폐막했다. 한국 선수단은 종합 4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종합우승은 러시아(금59·은43개·동33)가 차지했다. 통산 4번째 우승이다. 브라질(금34·은26·동24)이 2위, 중국(금32·은31·동35)이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장병호 기자

고려대 vs 연세대, 2년 연속 농구 맞대결

대학리그 챔피언 결정전 격돌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2015 대학농구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에서 2년 연속 맞대결한다. 두 학교는 12일부터 3전 2승제로 열리는 챔피언결정전을 통해 올해 대학농구 최강자를 가려낸다.

지난해 대결에서는 고려대가 2승1패로 정상을 차지했다. 올해 정규리그에서도 고려대가 15승1패로 1위를 차지했고 연세대는 14승 2패로 그 뒤를 이었다.

정규리그에서는 한 차례 맞대결이 있었다. 고려대가 86-76으로 승리했다. 7월 말 MBC배 결승과 지난달 양교 정기전에서도 고려대가 모두 이겼다.

고려대는 '국가대표 삼총사'인 이종현과 문성곤, 강상재의 존재가 위협적이다. 이동엽의 경기 조율 능력도 탁월하다. 연세대는 올해 아시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최준용, 그리고 '농구 대통령' 허재 전 전주 KCC 감독의 차남 허훈 등이 팀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고려대는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3년 연속 대학농구리그 우승에 도전한다. 연세대는 최근 고려대에 약세를 면치 못했던 분위기를 뒤바꾸겠다는 각오다. /장병호 기자

시카고 컵스, 세인트루이스에 설욕

NLDS 2차전 승리 승부는 원점으로

시카고 컵스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꺾었다.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됐다.

컵스는 11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2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에 6-3으로 승리했다.

전날 열린 1차전에서 컵스는 0-4으로 완패했다. 이날 승리로 전날의 패배를 설욕했다. 또한 5전 3승제로 열리는 디비전시리즈의 방문 2연전에서 1승 1패를 거둬 가벼운 마음으로 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컵스는 1회말 선제 실점했으나 이어진 2회초 1사 1, 3루에서 카일 헨드릭스의 희생번트 때 상대 투수 실책으로 주자가 모두 살고 득점까지 성공했다. 계속된 1사 2, 3루에서 또 희생번트로 역전했다. 이어 덱스터 파울러의 내야 안타로 한 점을 보태고 호르헤 솔레르의 투런포로 단번에 5점을 뽑아냈다.

3회초 1사 1, 3루에서는 미겔 몬테로의 내야 땅볼 때 3루 주자 앤서니 리조가 홈을 밟아 더 달아났다.

세인트루이스는 5회말 2사 후 콜튼 웡이 우측으로, 랜들 그리칙이 좌측으로 솔로 아치를 그리는 등 연속타자 홈런으로 추격에 나섰다. 그러나 컵스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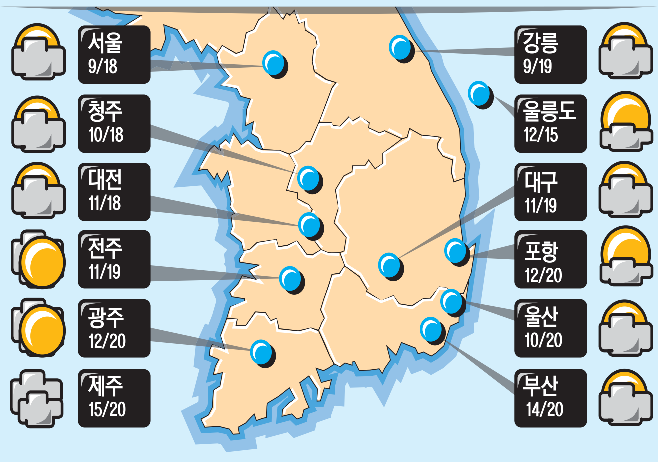
두 팀의 3차전은 오는 13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다.

/장병호 기자

날씨

10/12 월 일출시각 06:37 일몰시각 18:0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 감기가능지수 /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2	6			1
9			1					
		5	3	9			6	
3			2				7	
7		2				5		4
	6				4			3
	8			3	2	1		
					7			9
5			8	6		3		

5	8			2		4	9	
			9	4	8		2	
					7	8		
			3	7	6			2
		3				6		
6			8	9	4			
		1	7					
	3		2	8	5			
	6	9		1			8	5

스도쿠 정답

4	3	8	7	2	6	9	5	1
9	2	6	1	4	5	7	3	8
1	7	5	3	9	8	4	6	2
3	5	4	2	1	9	8	7	6
7	9	2	6	8	3	5	1	4
8	6	1	5	7	4	2	9	3
6	8	7	9	3	2	1	4	5
2	1	3	4	5	7	6	8	9
5	4	9	8	6	1	3	2	7

5	8	7	6	2	1	4	9	3
3	1	6	9	4	8	5	2	7
4	9	2	5	3	7	8	1	6
1	4	8	3	7	6	9	5	2
9	7	3	1	5	2	6	4	8
6	2	5	8	9	4	3	7	1
8	5	1	7	6	9	2	3	4
7	3	4	2	8	5	1	6	9
2	6	9	4	1	3	7	8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m writing a report

A: What are you working on?

B: **I'm writing a report.** I need to finish this by this afternoon.

A: It's due by tomorrow, though.

B: Yeah, but I'm meeting my girlfriend tonight.

A: That's the spirit!

B: What are you reading anyway?

A: Oh, I'm reading a new novel. This is very entertaining.

B: Please tell me the story. I'm all ears.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A: 무슨 작업을 하는 중이요?

B: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까지 끝내야 해요.

A: 하지만 마감은 내일이잖아요.

B: 네, 하지만 오늘 밤에 여자 친구를 만나거든요.

A: 바로 그 정신이에요!

B: 그런데 뭘 읽고 있나요?

A: 아, 신간 소설을 읽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B: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잘 듣고 있어요.

문법Point

동사의 현재진행형은 'be동사+동사의 ing형'으로 만듭니다. 현재진행형은 말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며 최근의 동향, 가까운 미래의 확정된 계획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I'm reading a book now. 지금 책을 읽고 있다.(현재시점)
I'm reading this book these days. 요즘 이 책을 읽고 있다. (근황)
I'm watching a movie tonight. 오늘 밤에 영화를 볼 것이다.(확정된 계획)

Words

due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novel 소설
entertaining 재미있는

* I'm in : 저도 낄게요.
– 누군가의 초청이나 활동에 함께하겠다고 동의할 때 사용하는 간단한 표현.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부동산 관련일 하는데 이직할까 고민입니다
2017년 지나야 안정… 금융 계통과 인연될 듯

잘될 거야 남자 79년 1월 6일 음력 해시

Q 선생님, 서비스직에 오래 근무하다 2014년 초부터 부동산분양과 부동산업무 직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작년보다 결과가 좋지 않아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이 직업을 계속해야하나 아니면 급여가 작더라도 고정수입인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이 저에게 잘 맞는지 아니면 2015년도가 지나기 전에 이직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현재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저에게 좋은 인연이 나타날까요? 결혼 운은 언제쯤 올까요? 긍정적인 성격이지만 요즘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답답해서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 봅니다.

A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존 토머 밀스)라는 말이 있듯이 현대 생활에서 직업은 매우 중요한 삶의 도구 입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며 만족 여부가 결정되겠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성 유무를 떠나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못 바꾸면 적성을 현직에 맞춰가야 합니다. 2017년 까지는 갈 길에서 늘 들떠 있기에 변화가 무쌍한데 복지부동하고 있다가 2016년 2월 이직의 운이 강하게 도래할 때 갈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하튼 2017년이 지나야 다소 안정의 기미가 오며 진로방향은 금융 계통과 인연이 되고 식신(食神:일거리)의 성분으로 부동산계통도 적합함을 참고하는데 업무부족으로 어느 한계점에 부딪친다고 봅니다. 2016년 2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현 직종에서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서 아는 것보다도 이론적으로도 실력을 배양해보십시오.

결혼 운은 편관도화(偏官桃花: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도화의 기운이 있음)로 2018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의 미모를 의심하여 의처증이 생길 수가 있고 처 궁이 불안한 편으로 색난의 조짐이 있으니 돈을 모을 때 까지 잠시 기다려 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는 '침금(沈金:물속에 잠긴 금)의 형상으로 겉은 견고하고 화려할지언정 내면은 늘 고독한 기운이 감돕니다. 의리지상(義理之象)이라 의리가 깊고 시비를 가리는 예리한 비판력을 지녔지만 하극상(下剋上)기질이 있기에 보증서는 일과 조급증으로 돈을 빌려 투자를 하여 손재(損財)를 볼 때가 있으니 지금부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12일 (음 8월 30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다툼이 있으면 손해만 봅니다. **60년생**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72년생** 어려움이 많으니 중도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84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소 — **49년생** 반기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61년생** 막힘이 많아 심신이 평안하질 못합니다. **73년생** 자금회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85년생** 과소비 또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랑이 — **50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62년생** 2년을 기다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4년생** 분명히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86년생** 평소 생활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 — **51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63년생** 치성을 다해 빌도록 하세요. **75년생** 사업은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87년생** 여기저기서 구원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용 — **52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입니다. **64년생** 업무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6년생** 주변의 여건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88년생**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습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뱀 — **53년생** 큰 욕심을 내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65년생** 하늘이 큰 복을 주니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77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89년생** 동쪽으로의 여행은 길합니다.

말 — **54년생** 얻는 것이 많으니 세상 일이 태평스럽습니다. **66년생** 친구들을 만나세요. **78년생** 행복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90년생** 사소한 것에 신경 쓴다면 득이 있겠습니다.

양 — **55년생** 북쪽으로 가세요. **67년생**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입니다. **79년생**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을 구상하게 됩니다. **91년생** 현재 벌이는 사업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원숭이 — **56년생** 차조심해야 하겠습니다. **68년생** 욕심을 부리면 서두르게 되니 차분히 생각하세요. **80년생**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게 되어 기쁘겠습니다. **92년생**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은 삼가세요.

닭 — **57년생** 작은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69년생** 주위에 길한 기운이 가득하니 모든 근심은 사라집니다. **81년생** 부와 명예를 누릴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93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개 — **58년생** 크게 바라지 않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70년생** 막혔던 일들이 서서히 풀립니다. **82년생**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94년생** 인간관계를 견고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돼지 — **59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71년생** 과음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83년생**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95년생** 우연한 기회에 이상형의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문화부-미래부 사이에 끼인 영상산업정책



양경미의 문화톡

영상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영상산업이 디지털화 되면서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상콘텐츠 상품은 스마트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방송국을 만들어 방송할 수 있도록 1인 제작시스템도 구축되었다. 심지어 영상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의 유통 역시 온라인화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영상산업 지원은 여기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영상산업정책은 문화부와 미래부로 분산되어 있다. 문화부에서는 아날로그 영상산업의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부는 디지털 영상산업을 담당한다. 급변하는 영상산업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현장에서 문화부와 미래부의 업무영역 구분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정책을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불확실해지니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영화산업 하나만을 보더라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왜 중요한지 분명해진다. 얼핏 보면 한국영화는 위기가 없어 보인다. 1000만관객 영화가 해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한국영화 총매출액도 2조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국민 1인당 영화관람 편수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영화의 불모지와 같았던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며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우리 영화는 지나치게 극장매출에만 의존한다. 세계시장이 극장매출과 디지털 온라인매출에 4대 6의 비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8대 2로 극장매출의 의존도가 높다.

기존에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화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집안에서, 스마트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극장위주의 유통구조를 성장세를 타고 있는 IPTV/VOD와 같은 디지털 온라인 구조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국제영화제를 통해 작품성이 뛰어난 영상상품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은 물론 제작·유통지원을 해야 한다. 영화산업이 디지털 온라인 유통구조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를 위협하는 중국은 어떤가. 중국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급격한 팽창은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비록 지금 우리 영상산업이 한류의 유행에 따라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중국 영상산업 또한 급속히 디지털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상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원부서의 역할분담과 지원체제가 재정비돼야 한다.

영상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영상문화와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경제 분야인 영상산업이 융합된 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다. 창조경제가 활성화해 한국영상산업이 발전하려면 제작과 유통구조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한국영상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

社說

중금리대출 활성화방안 나와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1.5%로 역사상 가장 낮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역시 최저다. 그러나 금리인하의 혜택은 고르게 미치지 않고 있다. 상당수 서민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실이 내놓은 '차주(借主) 특성별 가계대출 잔액'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은 작년 말 114조2000억원에서 올해 6월 114조1000억원으로 1000억원 줄었다. 반면 이들의 비은행권 대출은 23조7000억원에서 24조7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은행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비은행권 대출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금융사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거둔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은 2조394억원에 이른다. 상위 20위 대부업체 순이익은 작년 5095억원으로, 2009년의 1.6배로 늘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비은행금융사들이 고금리 영업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대출 가운데 연 25% 이상 고금리대출이 70%를 넘는다.

이처럼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에 매달리게 된 것은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한 나머지 중금리 대출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때문에 신용도가 조금 낮은 서민들은 갈 곳이 없게 됐다. 그런 틈을 타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장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주요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개혁을 추진중이다. 금융개혁의 주된 목표는 우리나라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이다. 하지만 신용도가 조금 낮은 사람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 그래야 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

화려함 대신 내실 얻은 부산국제영화제



기자 수첩
장 병 호
<생활문화부 기자>

"올해 영화제는 참 조용한 것 같아요."

지난 2일 찾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올해로 스무 해를 맞이한 만큼 성대하고 화려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20회를 맞이한 영화제는 여느 해보다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행사를 치렀다. 스무 살이라는 외양보다 영화제 본연의 내실을 갖추겠다는 각오가 느껴졌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초부터 평탄치 않았다. 세월호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이 지난해 영화제에서 상영된 뒤 부산시와 겪게 된 갈등이 올해 초 본격화됐다. 그동안 영화제를 이끌어 온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부산시로부터 사퇴 권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지원 예산까지 대폭 삭감됐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성인식은 시작부터 힘겨웠다.

그러나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고 했던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더욱 성숙해졌다. 이용관·강수연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재정비하고 내실 있는 20회 행사를 준비했다. 지난 8월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내세운 것 또한 '성대함'이 아닌 '성숙함'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물속에서 우아한 몸짓으로 만날 것"이라는 말에는 올해 영화제의 지향점이 잘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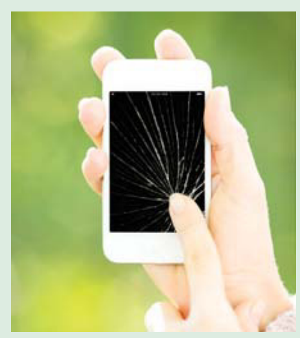
그렇게 지난 1일 막을 연 부산국제영화제는 개막식 날 찾아온 폭풍우를 제외한다면 큰 사건사고 없이 열흘 동안의 축제를 무사히 마쳤다. 운영 면의 미숙함이 없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행사는 합격점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역대 최다 관객(22만7377명)을 기록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2007년부터 관객과 기자의 신분으로 매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지만 올해처럼 평온함을 느꼈던 것도 처음이다.

물론 스타와 이슈를 좇아야 하는 기자 입장에서 올해 영화제는 다소 심심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스타와 이슈가 사라진 빈 자리에는 좋은 영화가 있었다. 짧은 취재 기간에 짬을 내서 본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자객 섭은낭'은 오랜만에 충만한 영화적 에너지를 느끼게 했다. 영화제의 본분은 이름 그대로 '영화'의 축제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조용한 만큼 편안함을 안겨준 영화제였다.

휴대전화 보험, 손보사만 배불린다

소비자 119

특정보험사와 손잡아 공정위 조사 착수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상품이 '호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호구와 고객을 합친 '호갱'은 어수룩해서 손쉽게 이용당하는 손님을 뜻하는 말이다.

공정위는 휴대전화보험 시장현황과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과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드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특정 보험사 1~2개와 손잡고 고객들의 선택을 사실상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 가입자의 휴대전화보험 계약은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맡고 있다.

게다가 휴대전화보험 보상기준이 대부분 실거래가가 아니라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 보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휴대전화보험으로 1110억원의 수익을 올려 불공정거래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인 사

◇세계일보▷디지털미디어국 소셜미디어부장 하동원

◇한겨레신문 △편집국 ▷디지털기술부국장(겸직) 엄원석 ▷디지털에디터 권태호 ▷디지털콘텐츠팀장 이수범 ▷뉴스팀장 김미영 ▷SNS팀장 박현철 ▷통일외교팀장 이제훈 ▷정치팀장 이유주현 ▷사회정책팀장 안선희 ▷24시팀장 이정애 ▷법조팀장 이춘재 ▷경제데스크 겸 산업1팀장 홍대선 ▷산업2팀장 정세라 ▷정책금융팀장 이재명 ▷국제데스크 겸 국제뉴스팀장 황상철 ▷국제판팀장 겸 편집장 류재훈 ▷지역데스크 이지은 ▷수도권팀장 임인택 ▷문화스포츠데스크 겸 여론미디어팀장 안영춘 ▷책지성팀장 이유진 ▷대중문화팀장 손원제 ▷스포츠팀장 김양희 ▷삶과행복팀장 문병권 ▷ESC팀장 서정민 ▷사진기획팀장 이종근 ▷디지털사진팀장 김정효 ▷디지털출판팀장 김지야 △디지털미디어사업국 ▷모바일사업담당부국장 박중언 ▷기획위원 이현숙 ▷디지털사업팀장 진선화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 박정웅 △연구기획조정실 ▷사회적경제센터장 조현경 △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장 박창식 ▷비서팀장 정혁준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황규연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전보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재율 △고위공무원 승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병윤 △과장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서기관 김광휘 ▷지방규제혁신과장 서기관 장금용 ▷법무담당관 서기관 박제화

◇전국은행연합회 △임원 승진 ▷상무이사 홍건기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가을을 물들이는
부드러운 한 잔
부드러운 소주의 처음, 처음처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